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와 지역경제 전망

Beyond No.1 in Korea

BNK



BNK금융경영연구소
백충기 수석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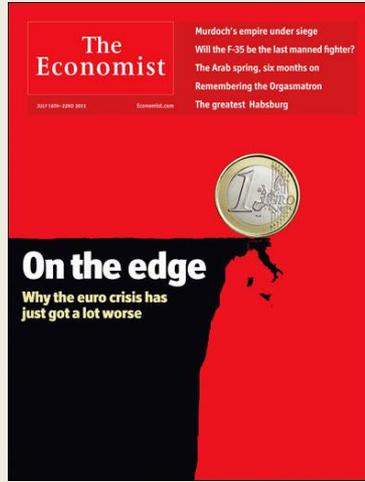
1장

Era of Uncertainty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2008.10.4



2011.7.16



2014.2.15



2015.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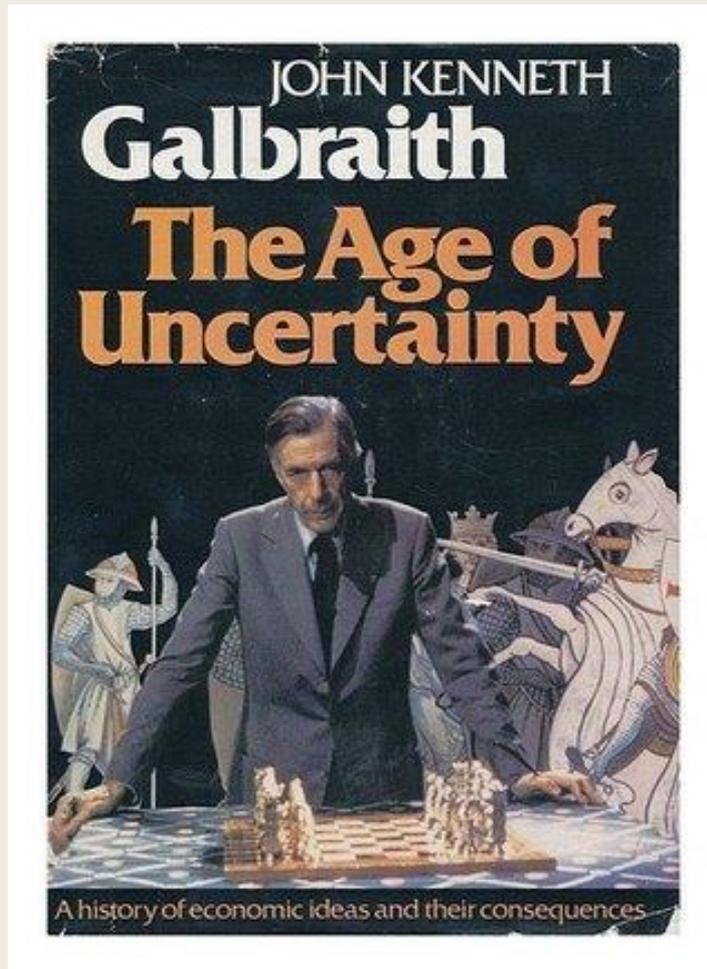


2015.8.29



2016.07.02

Era of Uncertainty



“The only function of economic forecasting is to make astrology look respec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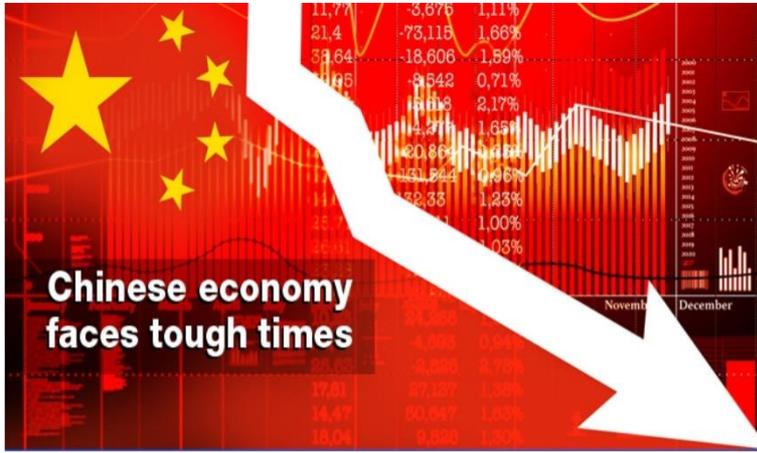
Era of Uncertainty



1장

2016년 Global Issue REVIEW

2016년 상반기



※ 마이너스 금리 인하 효과

■ 마이너스 금리 인하 효과

- ▶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적용 → 은행은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하
- ▶ 예금자의 소비지출 확대
- ▶ 외국자본 유입억제 →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유도 → 수출경쟁력 강화

■ 실제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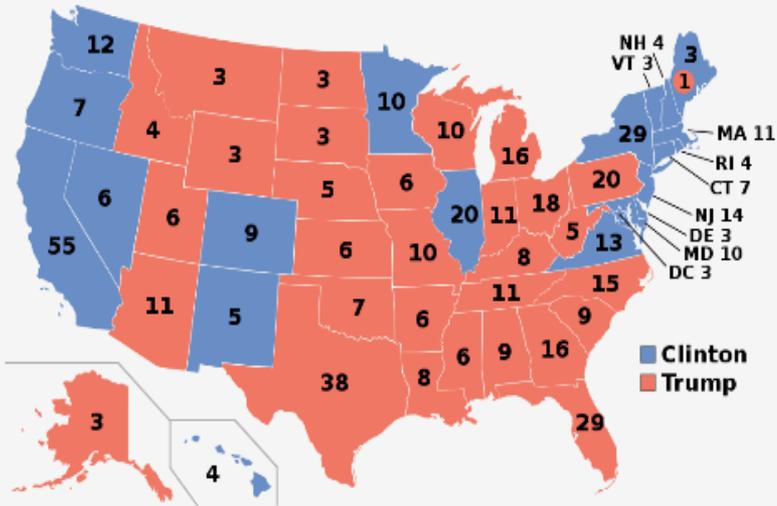
- ▶ 현상황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신호로 인식
- ▶ 고객 이탈 우려로 금리인하 부분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여 은행 수익성 악화

2016년 하반기

투표 시간

2016년 11월 8일 14시 ~ 11월 9일 15시 (UTC+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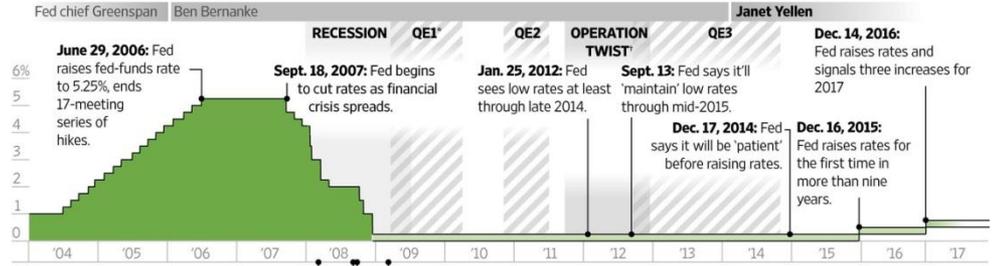
투표 결과



후보자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선거인단 수	227 / 538명 ^[1]	304 / 538명 ^[2]
전국 득표 수	65,844,610표 (48.2%)	62,979,636표 (46.1%)

Upward Momentum

The U.S. Federal Reserve said Wednesday it is raising its benchmark federal-funds rate a quarter percentage point, to a range between 0.50% and 0.75%, the first increase since December 2015 and just the second move higher since June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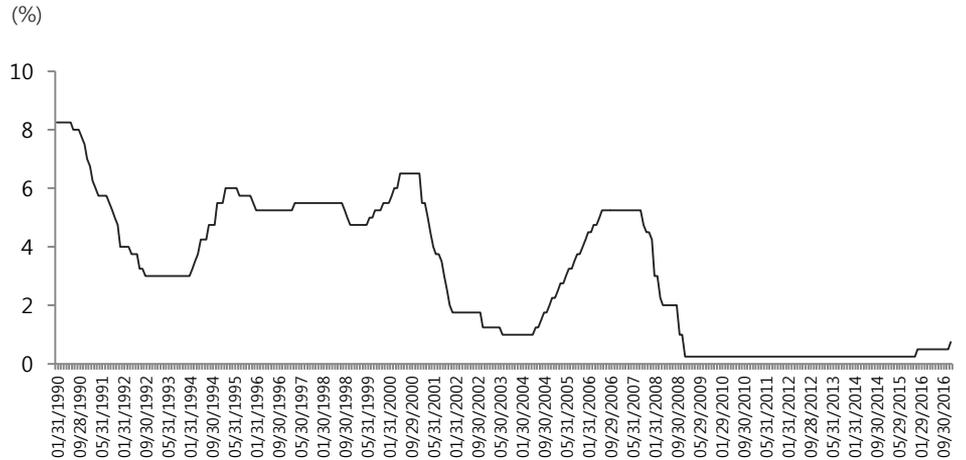
March 2008: Fed helps J.P. Morgan buy Bear Stearns. **March 18, 2009:** As QE ramps up, Fed sees low rates for 'extended period.'

Sep. 2008: Lehman Brothers files for bankruptcy. **Oct. 3, 2008:** President Bush signs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In QE (quantitative easing) programs, the Federal Reserve purchased billions of dollars of Treasuries and other instruments.
 †A program in which the Fed sold shorter-term bonds and bought longer-term ones to extend the maturity of its balance sheet.

Source: Federal Reserve

THE WALL STREET JOURNAL.



2장

트럼프 시대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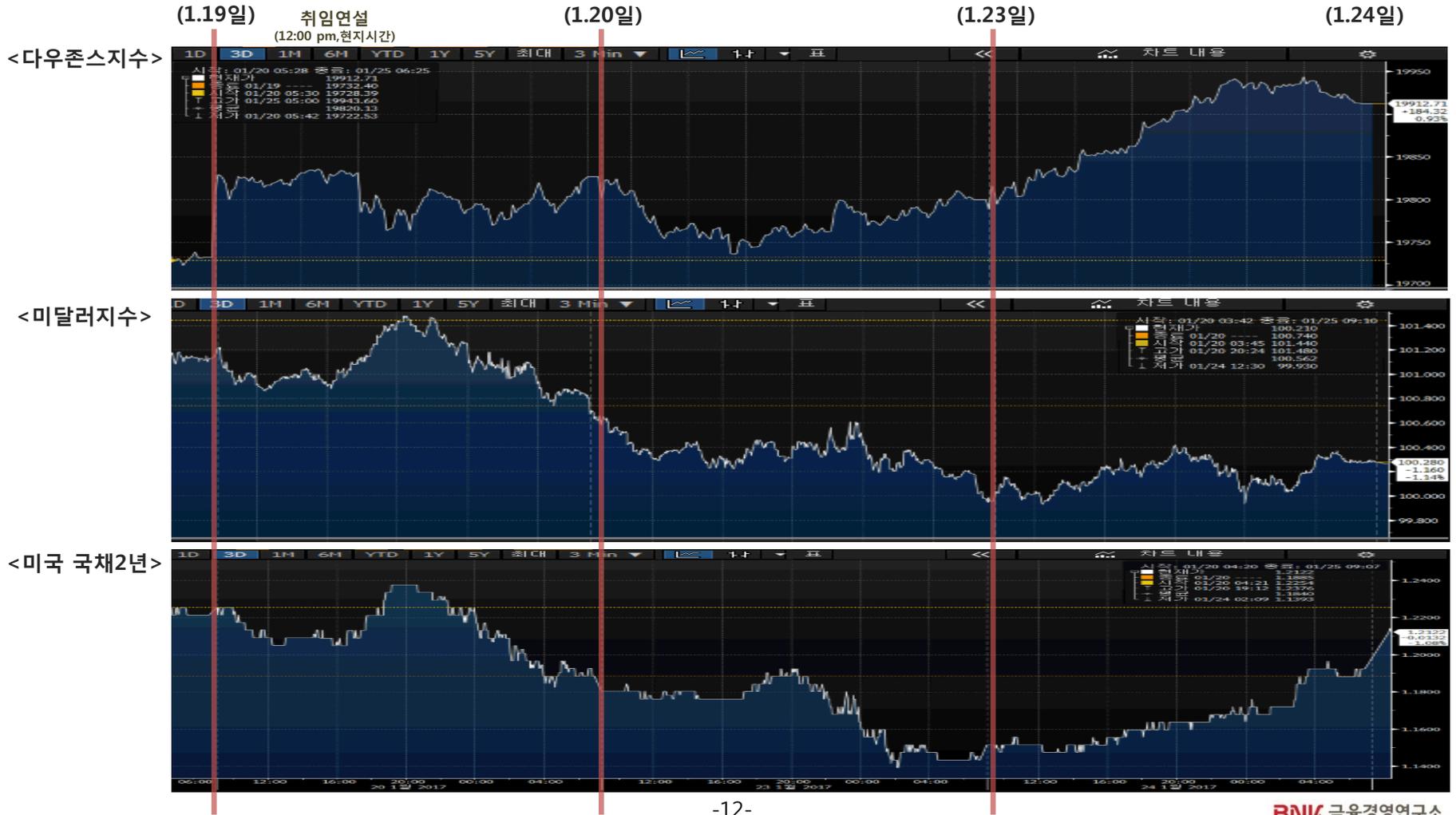


The 58th Presidential Inaugural address

“ I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 ”

트럼프 신정부 출범

- 취임식 당일(1.20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기존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차분한 모습 시현



※ 트럼프 행정부 인선의 특징

Key White House Advisers



Jared Kushner



Kellyanne Conway



Steve Bannon



Reince Priebus



Michael Flynn



Gary Cohn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백악관 수석전략가

- ☐ 전 골드만삭스 투자자문가
- 보수적 백인민족주의자

게리 콘(Gary Cohn)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 ☐ 전 골드만삭스 최고운영책임자
- 공격적이고 거친 성격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

- ☐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Key Cabinet Members



Rex Tillerson
(State)



Steven Mnuchin
(Treasury)



James Mattis
(Defense)

렉스 킬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 ☐ 전 엑스모빌 CEO
- 전 미국 석유협회 회장, 친러시아 성향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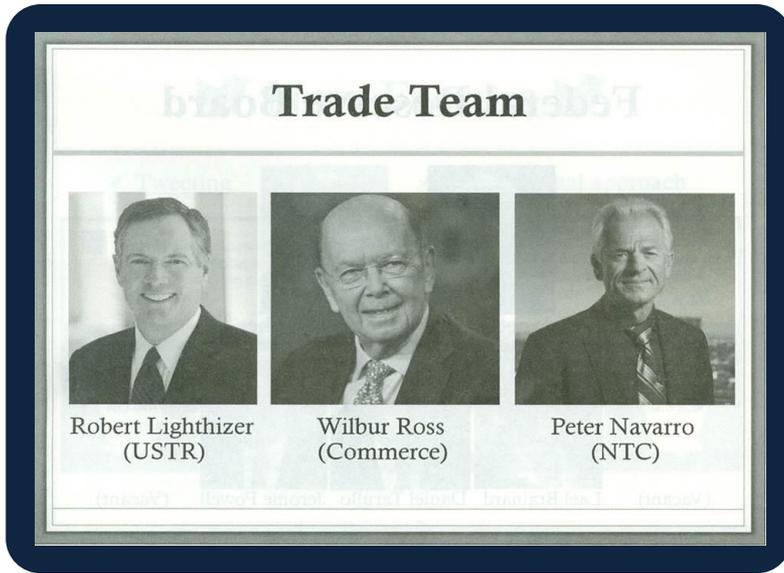
- ☐ 전 골드만삭스 CIO
- 전 Hedge Fund 대표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

- ☐ 전 중앙군사사령관
- 군내 별명은 'Mad dog'

※ 트럼프 행정부 인선의 특징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USTR) 대표

- ☐ 대중강경파
자유교역 회의적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 ☐ 전 로스차일드 북미 사장 출신
기업파산 구조조정 분야 전문가, 억만장자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 ☐ 전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
레이건 정부 통상정책 참여
철강분야 구조조정 경험

○ Government Sachs

취임연설문에서 확인된 정책방향 – ① 미국 우선주의

■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 “미국 우선주의” 비전을 취임연설을 통해 전세계에 공언,
미국 제품을 사고(*buy American*), 미국인을 고용한다(*hire America*)는 기본원칙 강조
- 주요 언론에서는 화합보다는 갈등의 여지를 만들어낸 연설이었다는 혹평
 - 철학이 없는 단순한 힘을 과시하는 연설에 불과... (*WSJ*)
 -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 (*Financial Times*)



취임연설문에서 확인된 정책방향 – ② 재정확대

■ 트럼프 발언

- “우리는 일자리를 되찾고 국경과 부도 되찾고 꿈도 되찾을 것이다. 부를 통해 도로, 교량, 공항, 터널, 철도를 만들 것이다”

We will bring back our jobs. We will bring back our border. We will bring back our wealth. And we will bring back our dreams. We will build new roads, and highways, and bridges, and airports, and tunnels, and railways all across our wonderful 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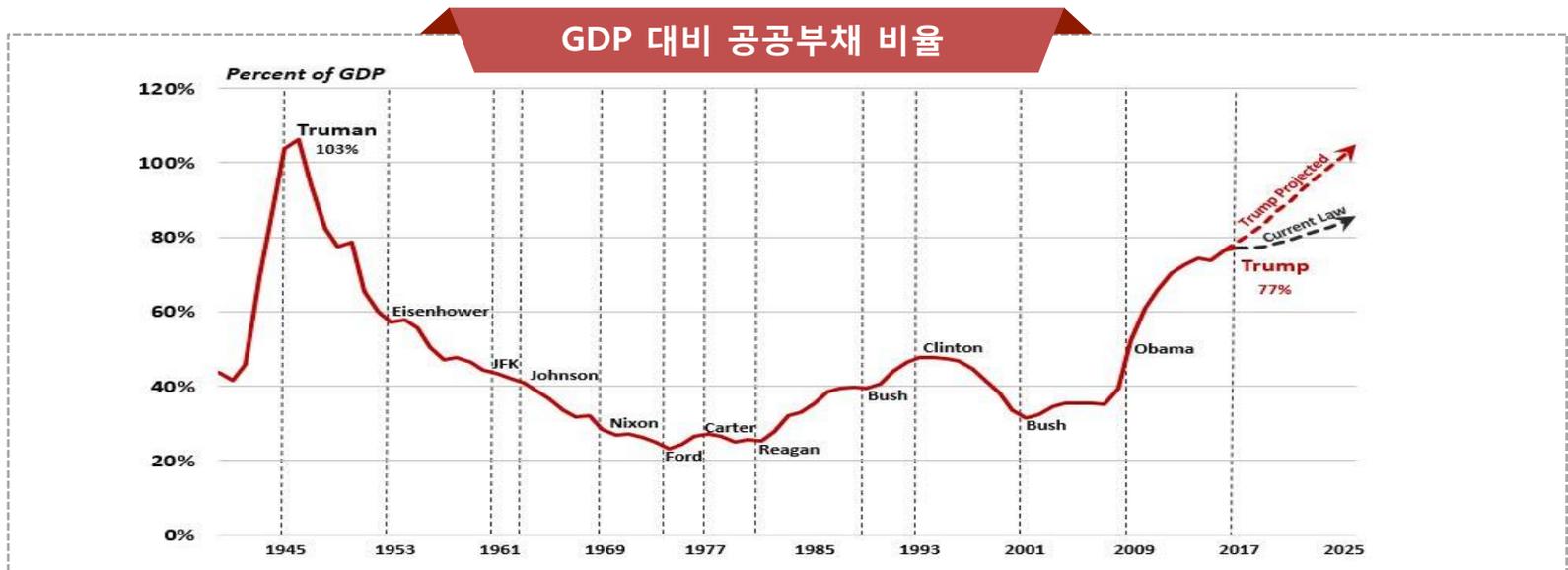
주요공약

- **개인소득세,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하 등 감세**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6% → 33%, 법인세 35% → 15%
 - 과표구간 단순화
- **대규모 인프라 투자**
 - 물류시스템 확충, 에너지 시설 현대화 등 5년간 1조달러 투자

취임연설문에서 확인된 정책방향 - ② 재정확대 (계속)

■ 미국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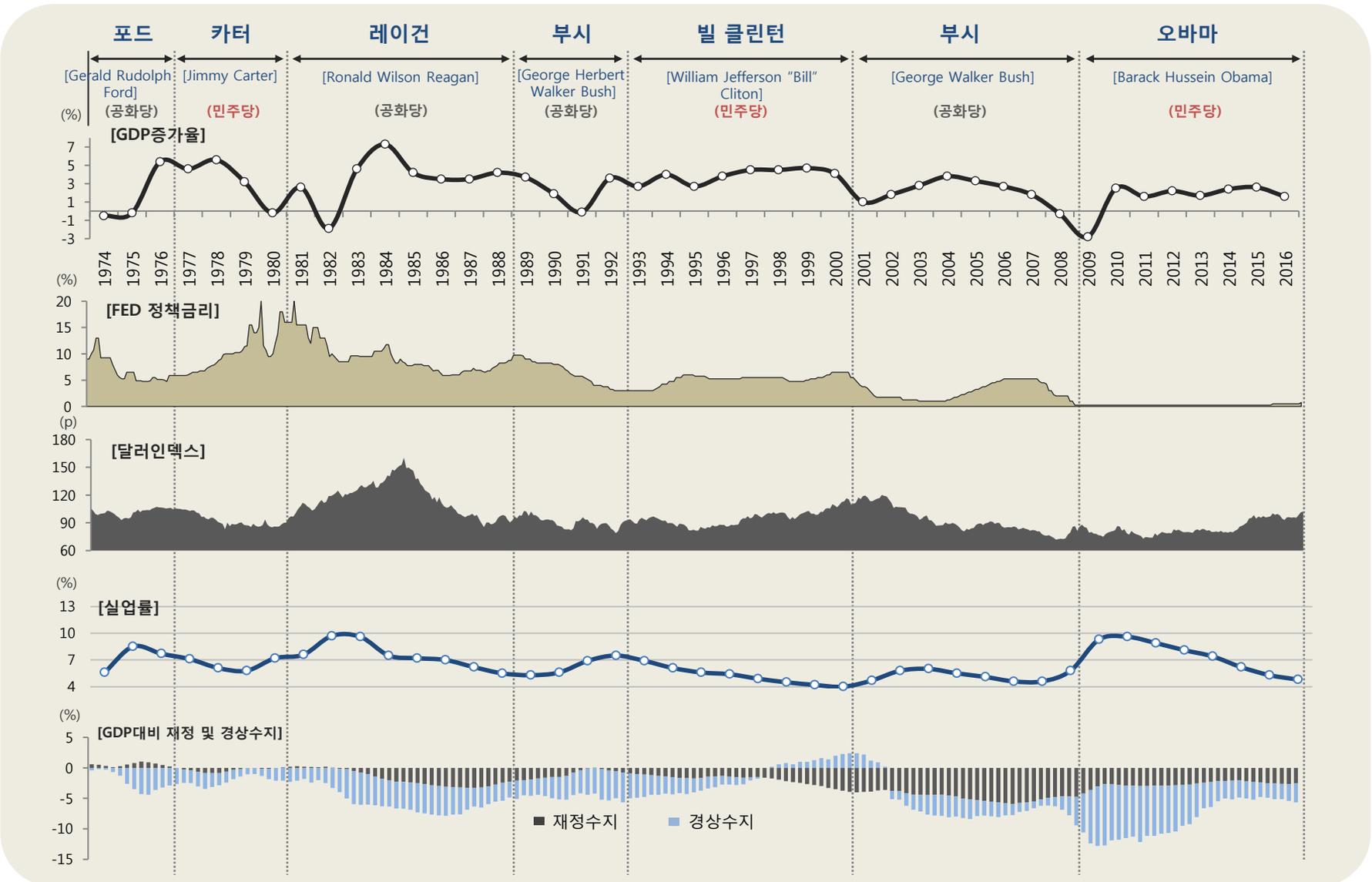
- 민간소비 진작, 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기대, 수출에는 부정적
 - IMF, 2017년 미국 경제성장률 2.3%로 상향 조정
 - 미달러화는 강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의회의 재정부양 정책 반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 미국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 77%, 공화당 의원들 찬성여부 불확실



주 : 부채비율 = 공공부채 / GDP

자료 : 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 역대정권 주요지표



■ 트럼프 발언

- “보호주의는 강한 번영을 이끌 것이다. 미국은 다시 이기는 국가가 될 것이다”

Protection will lead to great prosperity and strength. American will start winning again, winning like never before

주요공약

- **TPP, 한미FTA 등 기존협정 추진 중단 또는 재협상**
 - 일본, 캐나다 등 11개국과 추진중인 TPP 탈퇴, 한미 FTA, NAFTA 등 기존협정 재검토
- **무역적자국 대상 高관세 부과,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 중국 최대 45%, 멕시코 최대 35%
 - 환율조작국 지정시 중국에 대한 금융지원 금리,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등의 제재를 가할 가능성

■ 미국경제 영향

- 리쇼어링 증가, 외국인투자 유인 등으로 성장 확대
 - 트럼프는 보호무역 등의 효과로 10년간 2,5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언
 - 도요타,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멕시코 진출 계획 폐기
-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시화될 경우 미국 역시 교역규모 축소에 따른 성장 제약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시 중국도 보복관세 등 조치 예상

■ 트럼프 발언

-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다시 번영할 것이다. 우주를 개발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에너지와 내일의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

We will not fail. Our country will thrive and prosper again. We ready to unlock the mysteries of space, to free the Earth from the miseries of disease, and to harness the energies, industries and technologies of tomorrow

주요공약

- **석탄, 석유 등 전통에너지 산업 규제완화**
 - 환경보호를 이유로 규제해온 전통에너지 산업 규제를 완화
 - 셰일오일, 천연가스 생산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수출 확대를 도모
-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Act) 폐지**
 - 자본충족기준 등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

■ 트럼프 발언

- “무역, 세금, 이민, 해외분쟁에 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Every decision on trade, on taxes, on immigration, on foreign affairs, will be made to benefit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families

주요공약

- **멕시코 국경 장벽설치, 불법이민자 추방 등 강경한 이민 정책**
 - 미국 불법이민자중 절반이상 차지하는 멕시코인 유입 차단
 - 취업이민, 취업비자 축소
- **오바마케어 폐지**
 - 의료비 지출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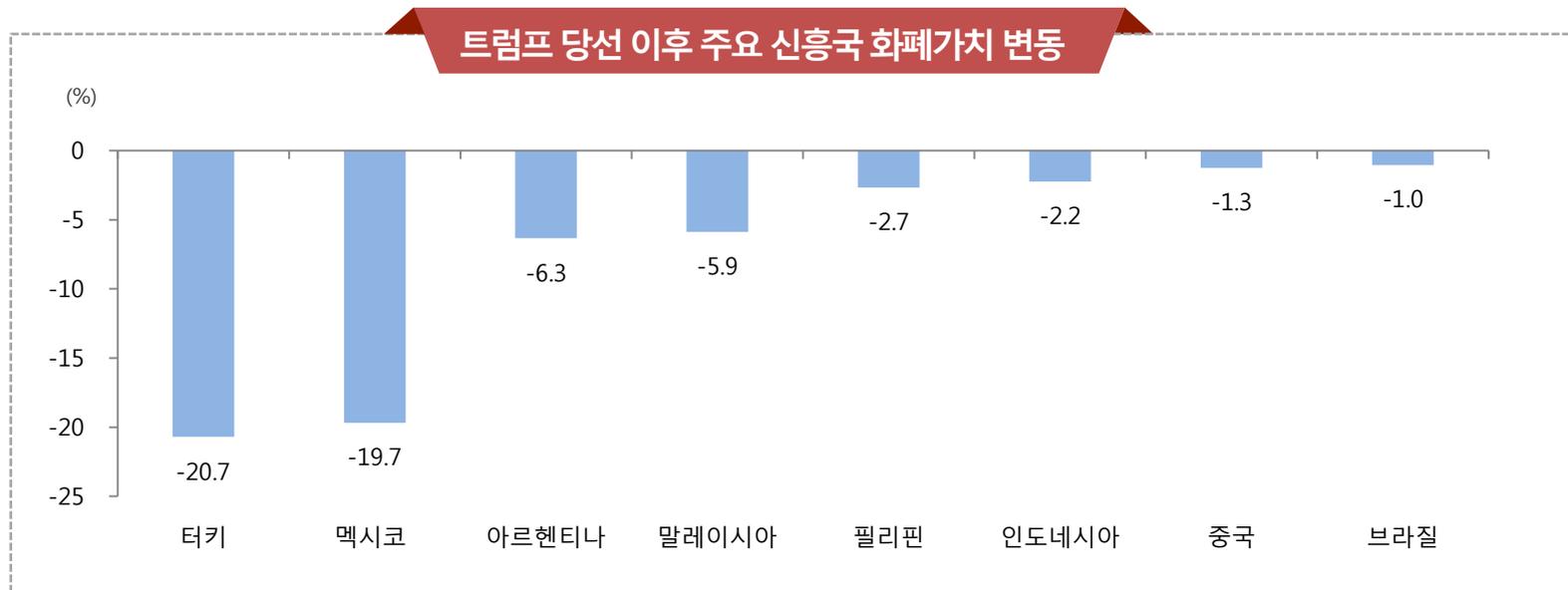
※ US-Mexico border



■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한층 높아질 전망

- 재정책대 정책 → 미국 금리상승 → 신흥국 자본유출
- 보호무역주의 → G2 통상마찰 → 양국 교역축소 → 글로벌 경기 위축

* 멕시코 폐소화 가치 : 1.1~20일 중에만 5.8%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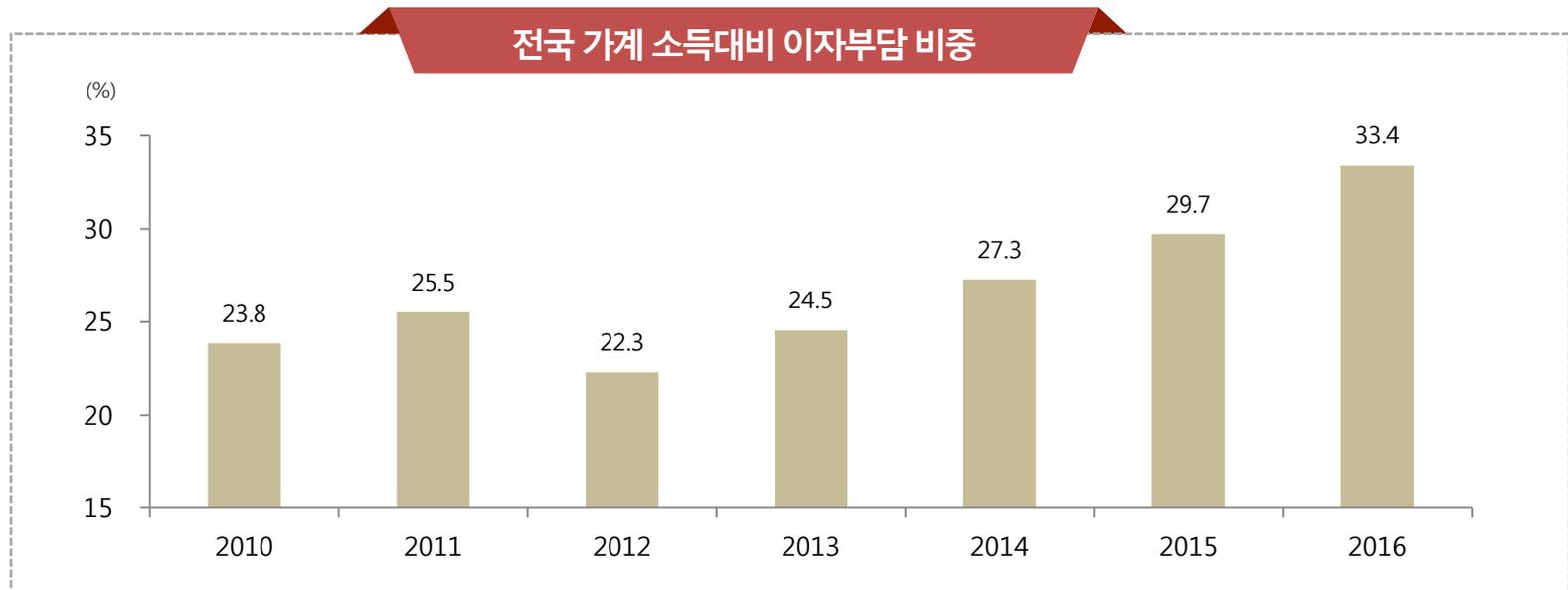


주 : 2016.11.8~2017.1.20일 변동률 기준
같은기간 원화가치는 3.0% 하락
자료 : Bloomberg

■ 국내 금리인상 속도 상승에 따른 경제 위축 가능성

• 미 연준의 점진적 인상 의지와 달리 급격한 금리상승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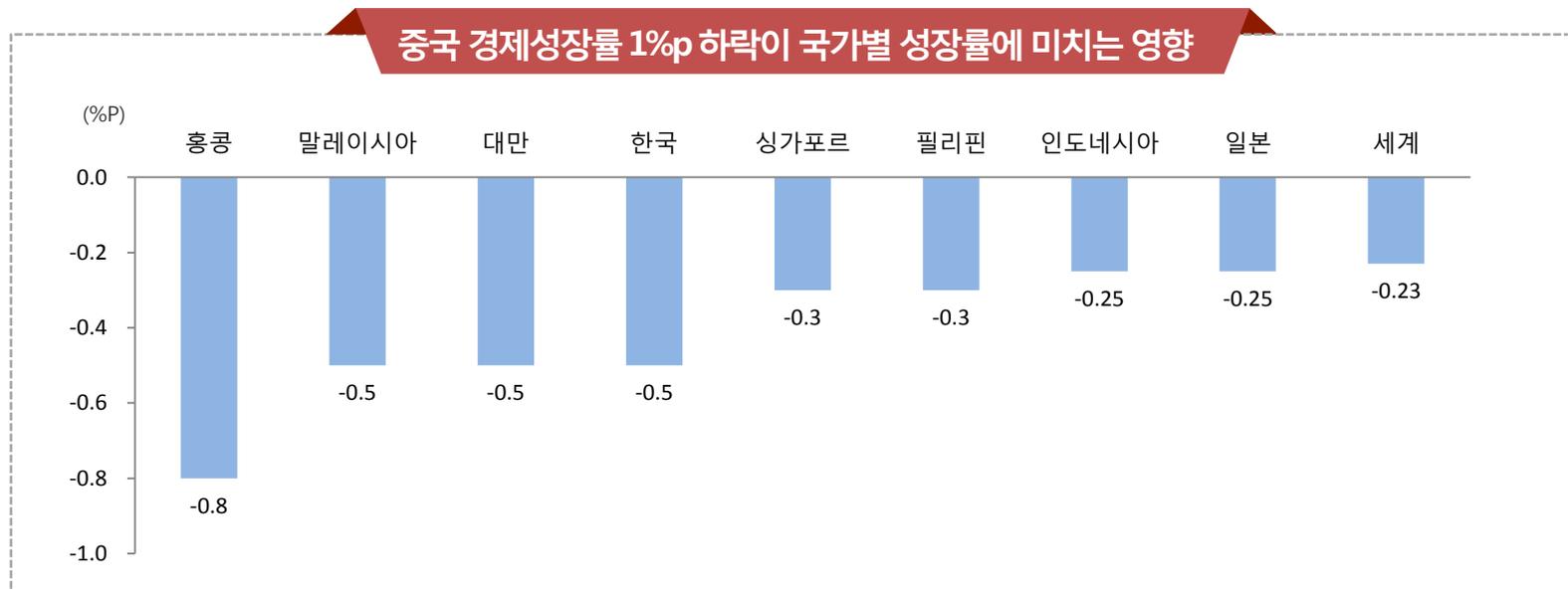
- 국내 경기부진에 따른 금리하방 압력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에 대한 부담
- 이자부담이 증가하면 소비심리 위축 및 투자부진 등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



자료 : 한국은행

■ G2간 무역전쟁으로 국내 수출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

- 상대적으로 중국의 타격이 더욱 클 전망
- G2로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한 간접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수출도 부정적
 - *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 총 수출액은 0.36% 감소된다고 분석(한국은행)
- IMF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낮아질 경우 세계 GDP는 0.23%p, 한국은 0.5%p 낮아질 것으로 추정



자료 : IMF

■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통상압력 강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 한국은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와 함께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

*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 ①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 ②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③ GDP의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대미 주요교역국 환율조작 관련 항목별 평가

국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십억달러)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	GDP대비 순매수규모
중국	356.1	2.4%	-5.1%
독일	71.1	9.1%	-
일본	67.6	3.7%	-
멕시코	62.6	-2.9%	-2.2%
한국	30.2	7.9%	-1.8%
대만	13.6	14.8%	2.5%
스위스	12.9	10.0%	9.1%

주 : 1) 2015.7~2016.6월 회계기준

2) 진한 글씨는 해당항목의 경우 지정요건 기준에 해당함을 의미

자료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Foreign Exchange Policy of Major Trading Partner of the US)

※ Brexit

◆ EU 가입국 : 28개 → 27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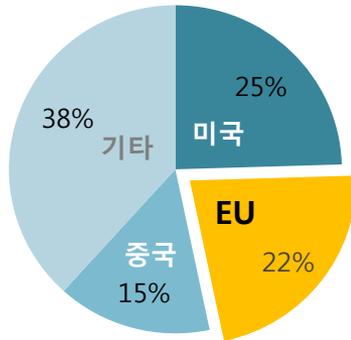


※ Brexit

■ 전세계 GDP 73.1조 중 EU는 16.2조달러로 22.2%를 차지(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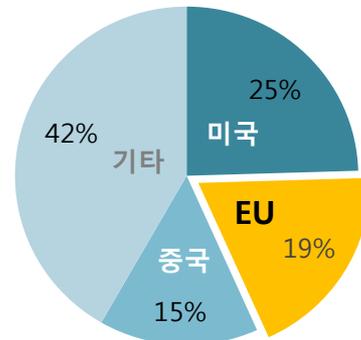
- 영국은 세계 5위(약 2.8조달러), EU에서 독일 다음으로(2위) 경제대국
 - ❖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5.7%, 인구 12.7%, EU예산의 5.8%

<영국 EU포함시>



■ 미국 ■ 유럽 ■ 중국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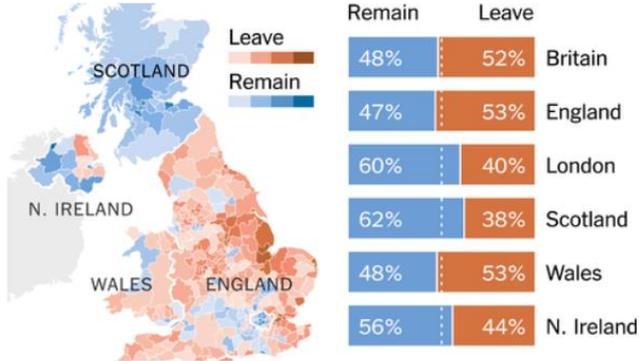
<영국 EU미포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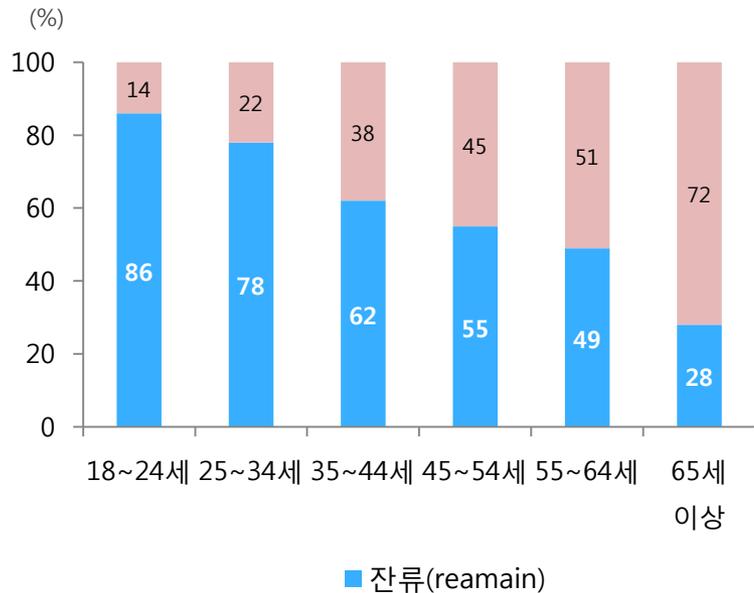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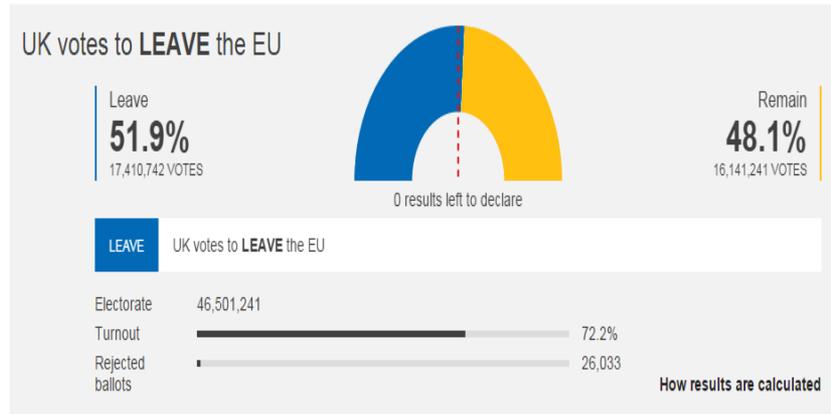
※ 한국GDP : 1,376십억달러(세계11위, 2015년기준)

주 : 2015년 기준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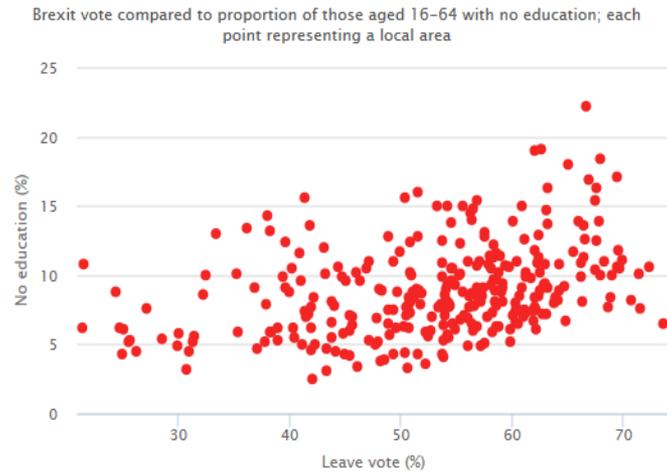
※ Brexit



Results



Those with no education tended to vote Brexit



※ Brexit

◆ 국민투표(Referendum)에서 EU탈퇴 측이 승리한 요인(영국 BBC 분석)

■ EU분담금의 과도함을 강조

- 캠페인 홍보문구 “We send the EU £350 million a week”를 사용

<EU 분담금 추정액>

구분	백만 £ / 년	백만 £ / 주	백만 £ / 일
총 분담금	18,777	361	51
(환급금 제외시)	14,361	276	39
(공공분야 수령액 제외시)	9,785	188	27
(민간분야 수령액 제외시)	8,385	161	23

자료 : 영국재무부

■ 이민자문제 부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전폭적 지지

- UKIP(영국독립당)이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노동자 결집 **“Breaking Pont”(한계점)**

■ 고령자의 높은 투표율

- 65세이상 고령자 투표율은 70%이상인 반면 청·장년층은 43~50%에 불과

■ 반 EU 감정 자극

- 과거 영연방국가 위상과 대비되는 EU내 높지 않은 영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

※ Hard Brexit



3장

글로벌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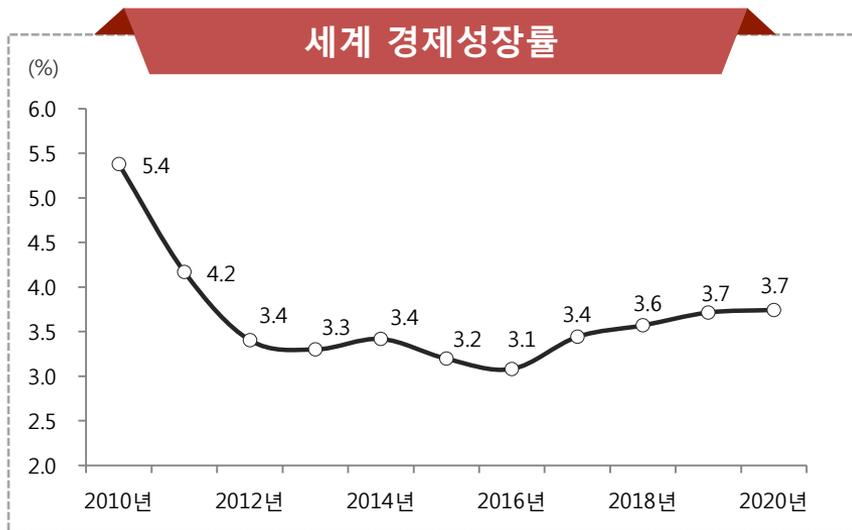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2017년 세계경제 3%대 초반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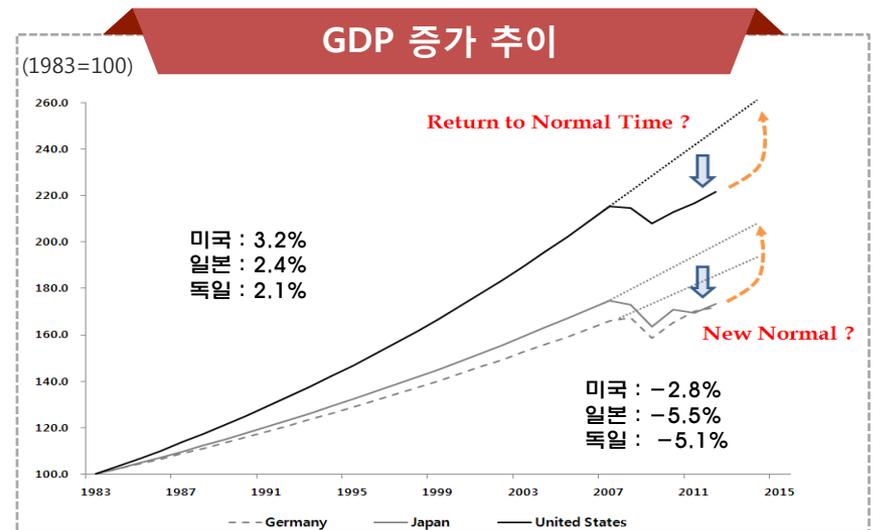
• IMF : 3.1%(16년) → 3.4%(17년) / OECD : 2.9%(16년) → 3.3%(17년)

■ 취약한 성장(Fragile growth), 높은 변동성(High volatility)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경로 탈선 → New Normal, New Medioc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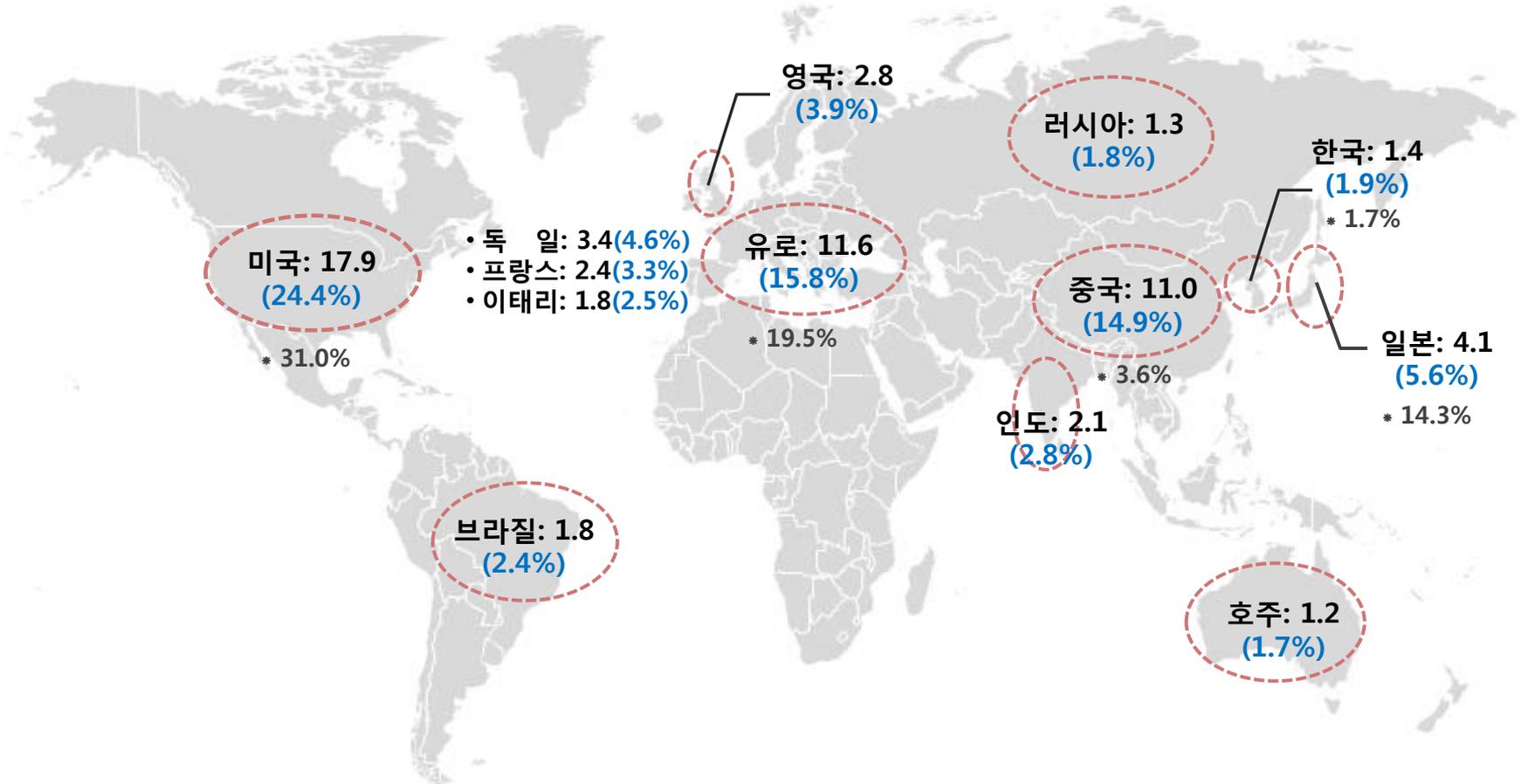
자료 : IMF



자료 : IMF

세계경제 현황

■ 세계 GDP 73.6조 달러



주: 2015년 기준, ()는 비중, *는 2000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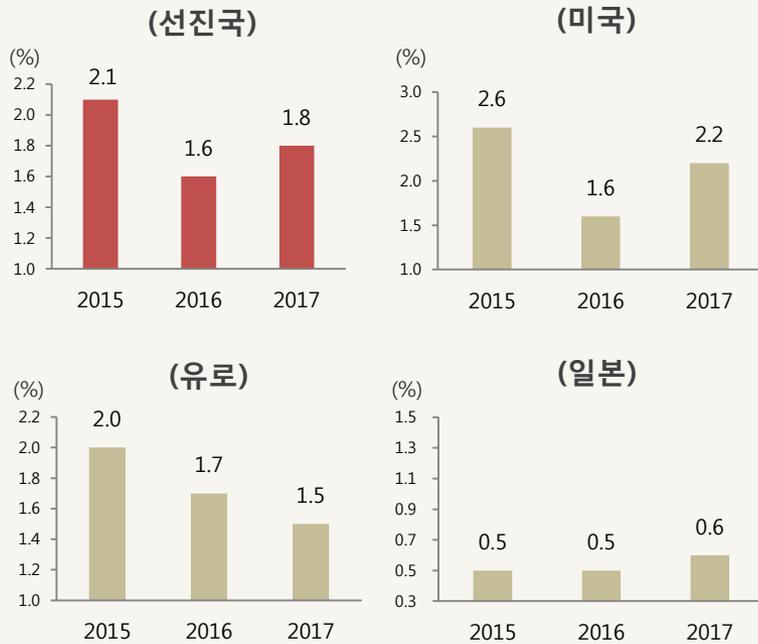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지역별 전망

선진국 : 저성장 지속

- 미국 : 완만한 회복
- 유로, 일본 : 저조한 성장세

선진국 경제성장률 및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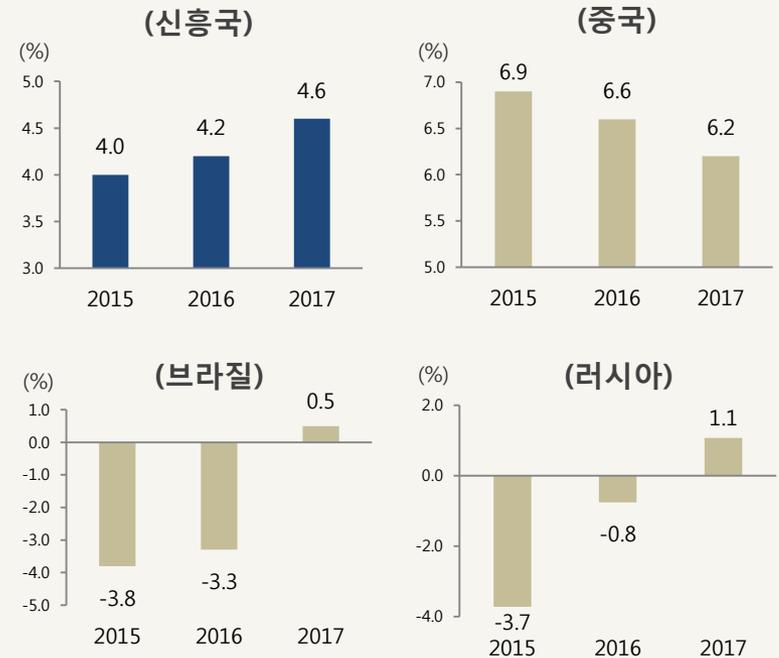


자료 : IMF(2016.10월)

신흥국 : 미약한 개선

- 중국 : 성장 둔화
- 브라질, 러시아 : 마이너스 성장 탈피

신흥국 경제성장률 및 전망치



자료 : IMF(2016.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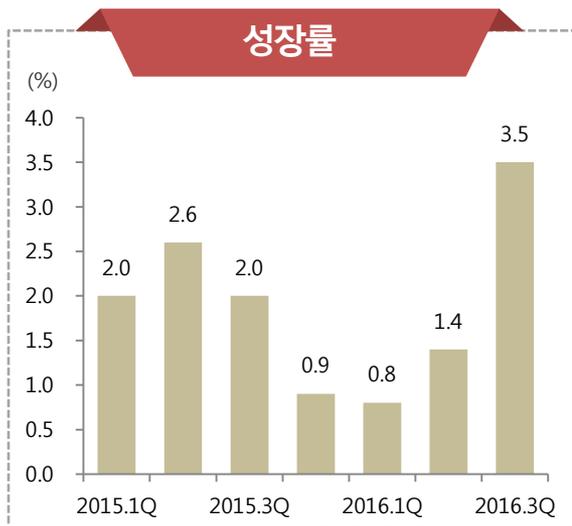
미국경제

■ 주요 지표 개선, 경기회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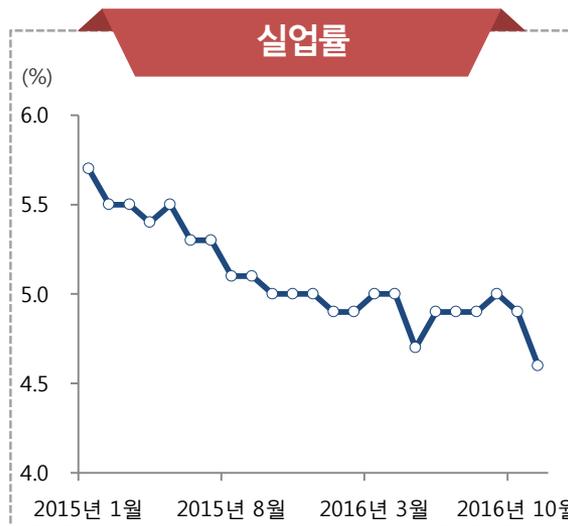
- 2016.3Q 경제성장률 3.5% 시현, 2년 만에 최고
- 고용 개선(2016.11월 실업률 4.6%), 부동산가격 회복 등으로 민간소비 확대

■ 2017년 성장 전망치 하향, 기준금리 인상, 트럼프 정책 리스크 부각

- IMF : 2.8%(15.10월) → 2.5%(16.4월) → 2.2%(16.10월)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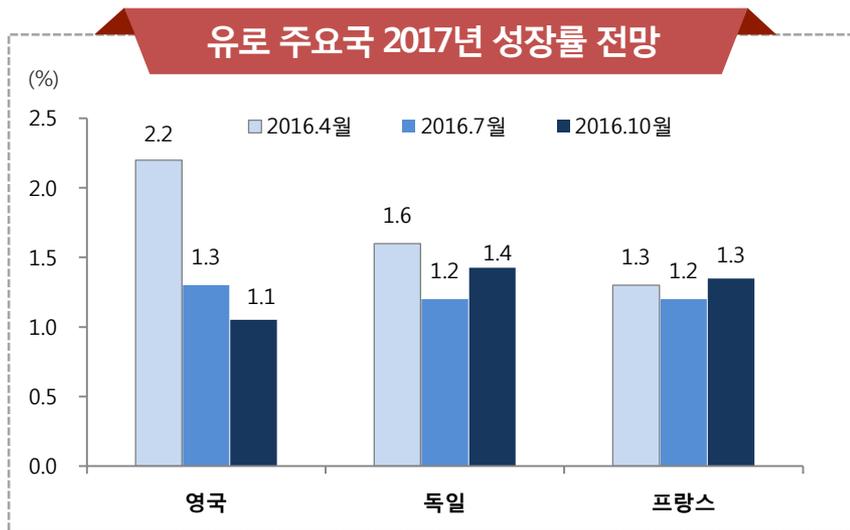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Case-Shiller Index)

■ 미약한 회복, 성장모멘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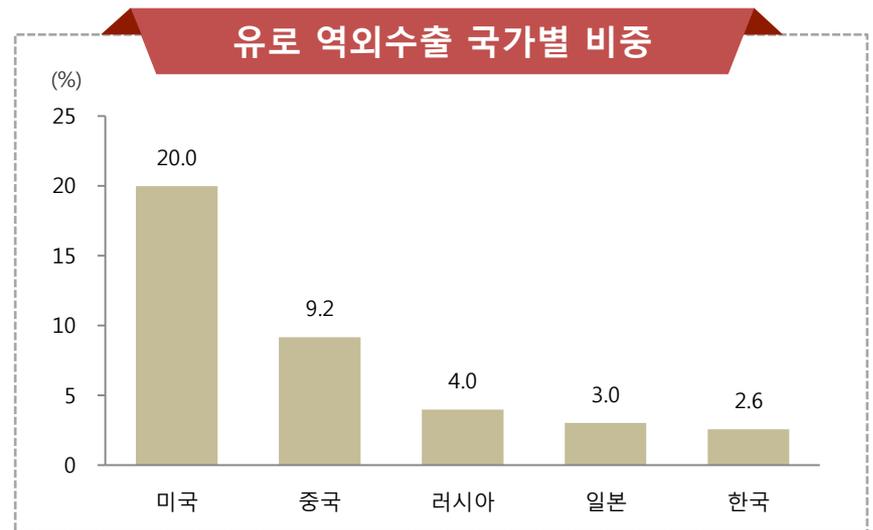
- Brexit 협상 본격화, 영국 등 주요국 성장률 0.1~0.9%p 하락 전망
- 네덜란드 총선, 프랑스 대선 등 정치적 혼란 가중, 민족주의 포퓰리즘 확산 가능성

■ TRUMPONOMICS,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투자 및 교역축소 가능성

- 미국 및 중국은 유로 역외수출의 약 30% 차지



자료 : IMF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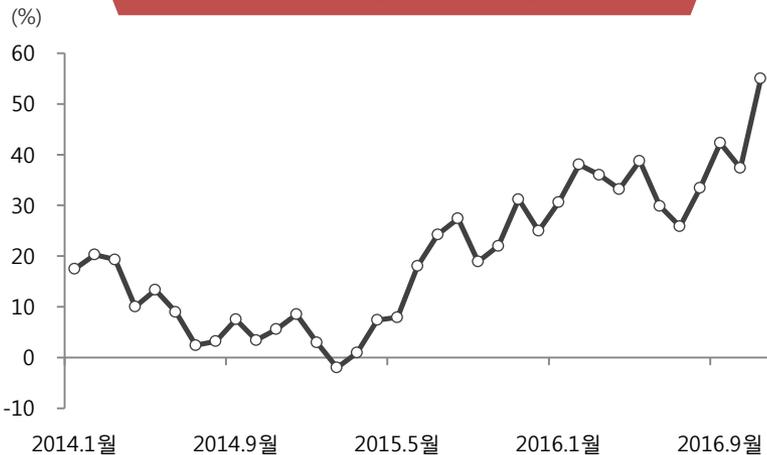
■ 성장 둔화, 완만한 경로 유지

- 투자·제조업 → 소비·서비스업, 경제구조의 Rebalancing 지속
- 무역마찰 등으로 수출부진 심화, 경기둔화 압력 증가하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예상

■ 부동산 과열 및 기업부채 누증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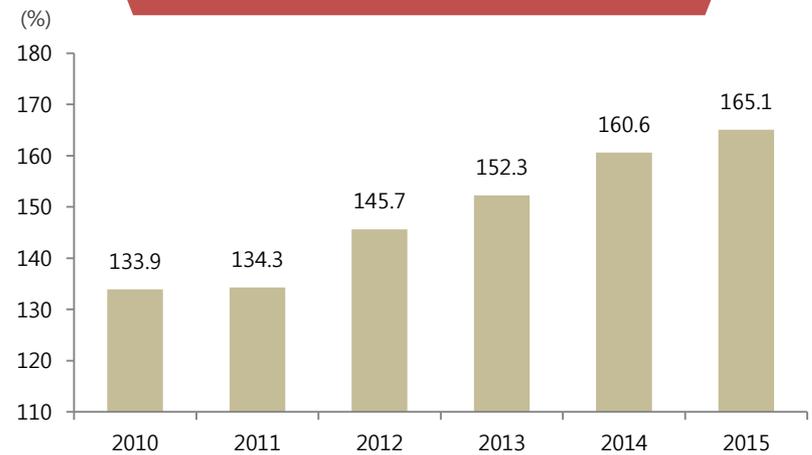
-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과잉생산 해소 본격화

도시지역 부동산가격 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도시 1지역 기준)
자료 : Bloomberg

명목GDP대비 기업부채 비율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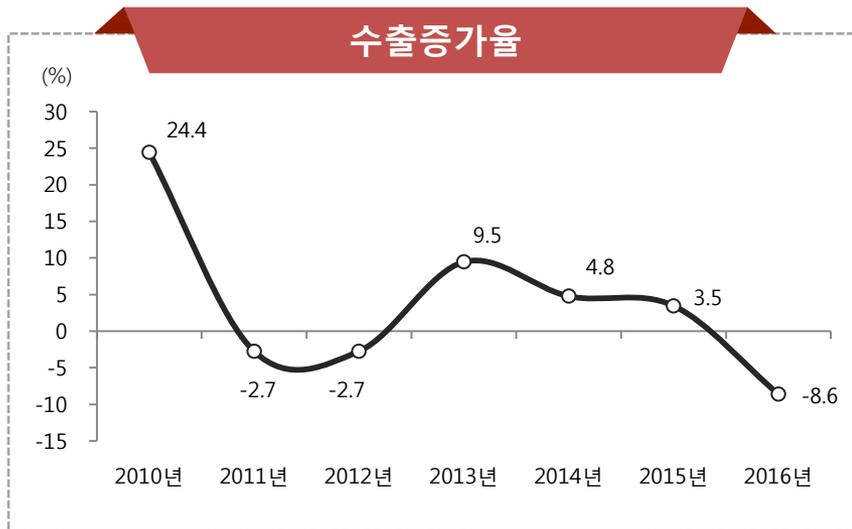
일본경제

▪ 저성장 지속, 회복세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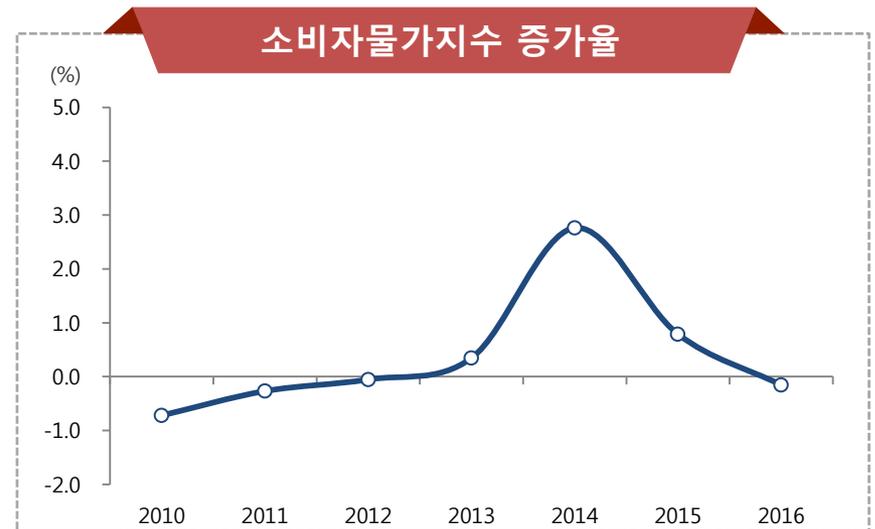
- 아베의 세 개의 화살(양적 완화, 재정 지출, 성장 전략)
- 불안한 아베노믹스,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구조개혁이 관건

▪ 낮은 잠재성장률, 수출 부진, 디플레이션 등이 제약 요인

- 엔고 현상 재개될 가능성, BOJ 목표치(2%)와 격차를 보이는 소비자물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Bloomberg

4장

국내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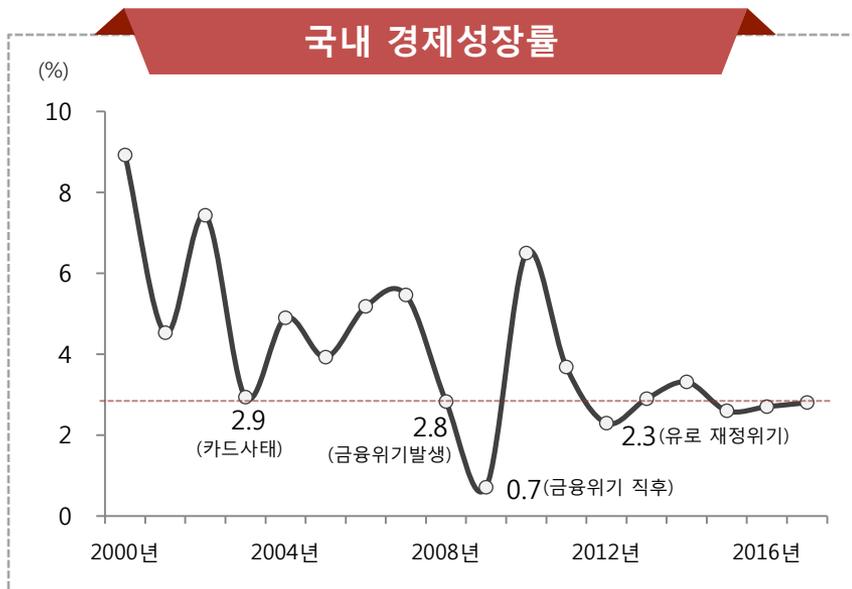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

■ 2017년 국내경제 2%대 초반 성장 전망

- 주요 기관의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성장잠재력 하락의 구조적 문제 부각

■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이 초래할 경제 후폭풍 우려

- 한국경제 '위기 10년 주기설'에 대한 경계감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각 해당기관

부문별 전망

▪ 내수는 부진하겠으나 수출은 회복 기대

- **(수출)**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으로 소폭 개선되겠으나 회복세는 미약
- **(투자)** 설비투자는 제한적 회복, 건설투자는 증가세 둔화 불구 양호한 흐름 유지
- **(민간소비)** 가계부채 부담 및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증가세 둔화

부문별 경제성장 전망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1H	2H	연간
GDP	2.6	2.7	2.4	2.6	2.5
민간소비	2.2	2.4	1.9	1.9	1.9
설비투자	5.3	-2.6	3.0	2.0	2.5
지식생산물투자	1.5	2.4	2.7	3.1	2.9
건설투자	3.9	10.9	5.9	3.0	4.3
수출	0.5	0.9	2.9	2.0	2.4
수입	2.0	1.6	4.3	0.5	2.3

(%)

자료 : 한국은행(2017.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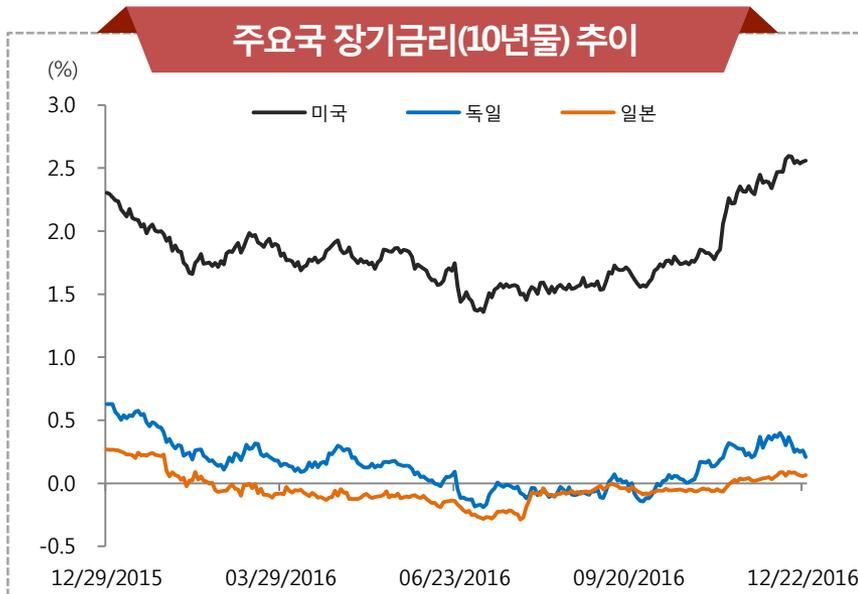
금리

■ 금리 상승 기대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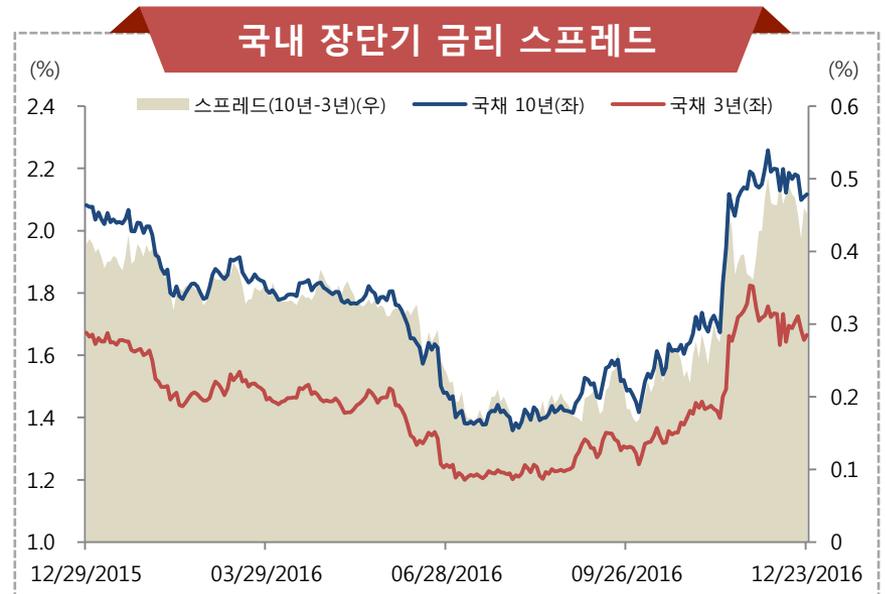
- 주요 선진국 시장금리 상승세 지속, 국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확대

■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견

-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은 점진적 속도(gradual adjustments) 유지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 달러화 강세 기조 가능성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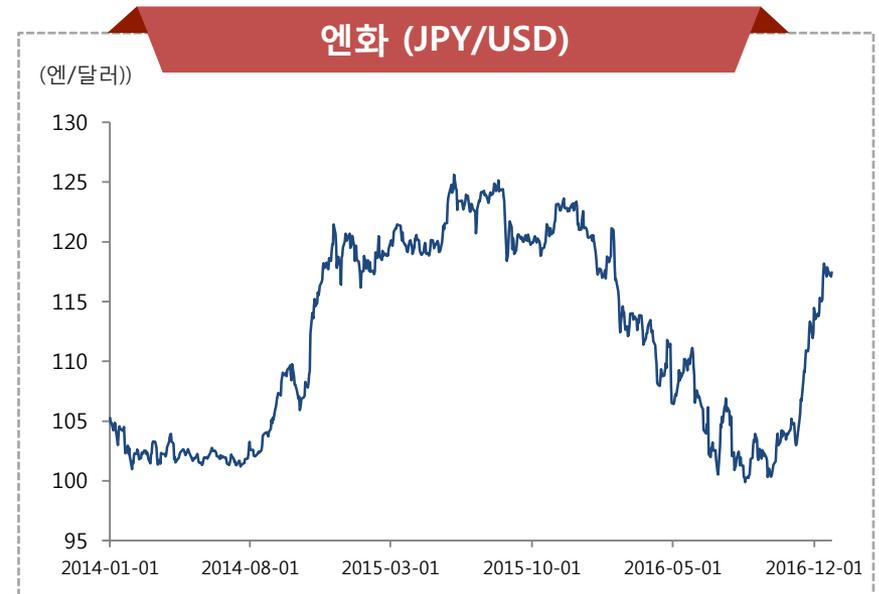
- 미국경제의 건실한 fundamental,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책대 정책

■ 엔화 약세 흐름 제한적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불가피,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 확대 가능성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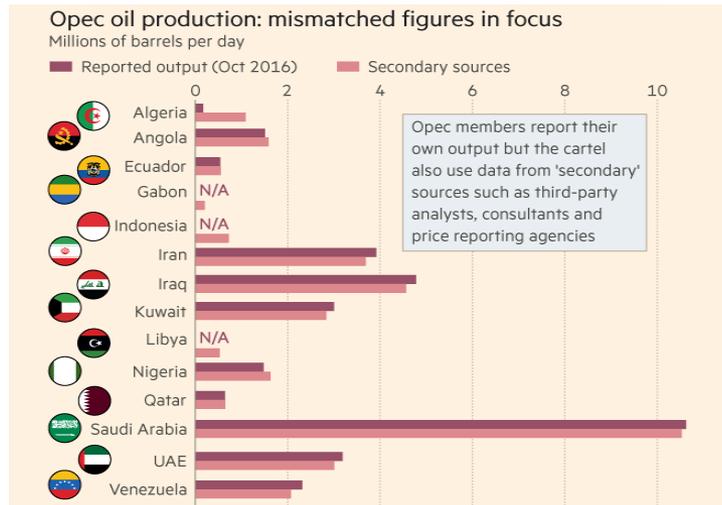
■ 배럴당 50~60달러 수준 전망

- 셰일밴드(Shale Band : \$40~60)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

■ OPEC 감산 합의 이행 여부가 최대 변수

- 2014년 1분기 이후 공급과잉 지속, OPEC 국가 대부분이 당초 합의한 생산량 초과

Opec 원유생산 계획 및 실제량



자료 : FT

글로벌 기관 유가 전망치

(달러/배럴)

구분	2017년			
	1Q	2Q	3Q	4Q
IMF	50			
World Bank	55			
EIA	47	48	51	54
Global IB	50	52	55	56
(Citigroup)	53	53	59	61
(BNP Paribas)	46	44	50	55
(Societe Generale)	51	53	56	58
(Commerzbank)	48	50	53	55

자료 : IMF, WB, Bloomberg

2장

동남권경제 및 주력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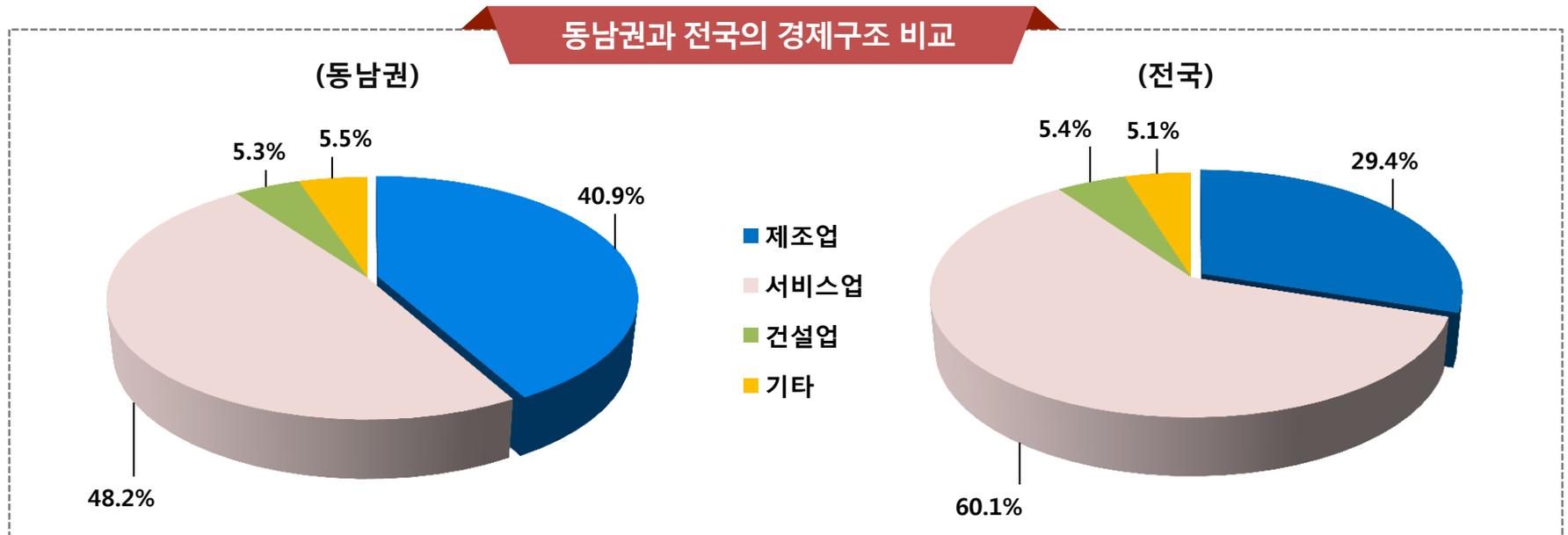
동남권경제 현황

동남권 GRDP는 252조원, 국내 비중 16.1%

• 부산 78.4조원, 울산 69.9조원, 경남 104.0조원

제조업 40.9%, 서비스업 48.2%, 건설업 5.3%

• 지역별 제조업 비중 : 부산 19.8%, 울산 64.4%, 경남 43.2%



자료 : 통계청, 부가가치 기준(2015)

■ 5대 주력산업, 동남권 제조업의 약 70% 차지

- 전국 57.6% : 전자(23.3%), 자동차(12.0%), 화학(8.6%), 기계장비(7.7%), 금속(6.0%)
- 지역별 5대 산업 비중 : 부산 58.1%, 울산 87.5%, 경남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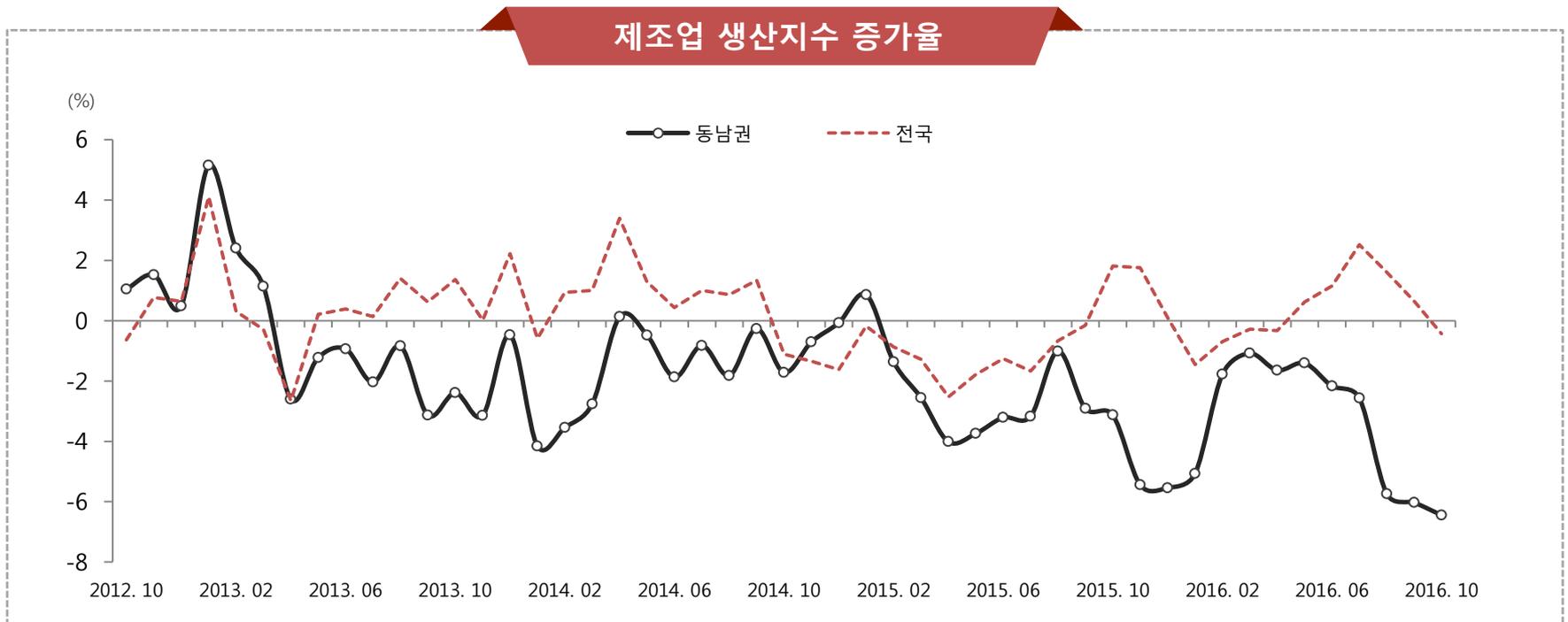
지역별 주력제조업 비중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동남권	자동차 (18.2)	조선 (17.4)	화학 (11.5)	기계장비 (11.2)	금속 (10.0)
부산	자동차 (14.5)	기계장비 (14.5)	금속 (12.4)	철강 (11.6)	조선 (5.1)
울산	자동차 (28.1)	화학 (25.8)	조선 (14.1)	석유정제 (13.1)	철강 (6.4)
경남	조선 (23.9)	기계장비 (17.6)	금속 (16.3)	자동차 (10.3)	철강 (4.8)

주 : ()는 산업별 비중
 자료 : 통계청, 부가가치 기준(2014)

동남권 제조업 마이너스 성장 지속

- 제조업 생산수준은 최고치 대비 약 80% 수준
-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 : 부산(75.5%), 울산(75.3%), 경남(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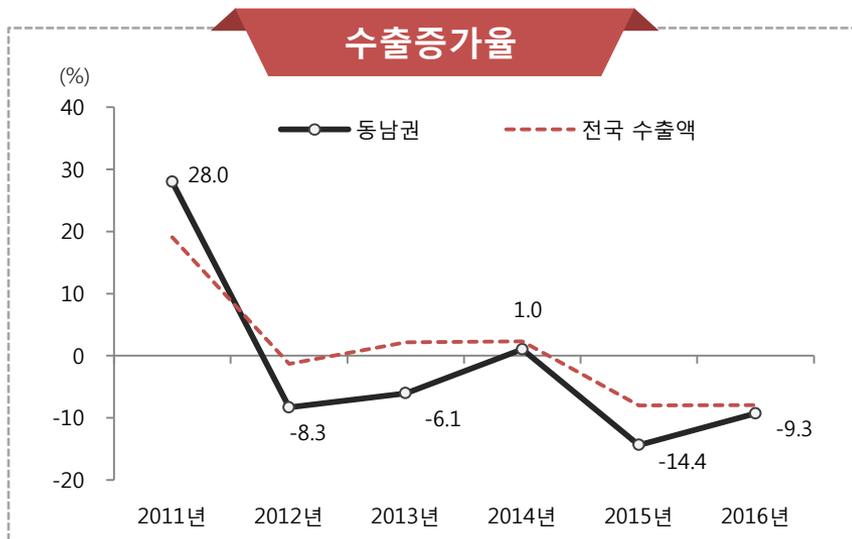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

■ 최근 5년간 연평균 7.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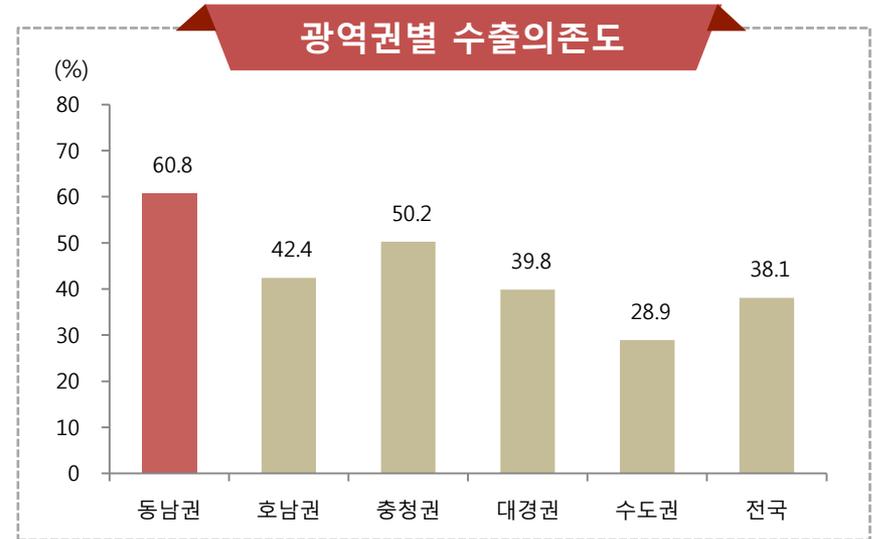
- 지역별 수출 증가율 : 부산(-1.0%), 울산(-8.9%), 경남(-7.3%)

■ 수출의존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최대 수준

- 동남권 수출 의존도 : 2011년 88.9% → 2013년 72.0% → 2015년 60.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수출의존도 = 수출액 / 명목GRDP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수출 위상 하락

• 2011년 전국 1위(32.8%) → 2016년 전국 2위(25.2%)

지역별 수출 순위도 모두 하락

• 경기가 국내 1위 지역으로 부상, 충남이 2위 차지

권역별 수출비중

(%)

순위	2011년		2016년	
	권역명	(비중)	권역명	(비중)
1위	동남권	(32.8)	수도권	(37.8)
2위	수도권	(30.7)	동남권	(25.2)
3위	충청권	(13.7)	충청권	(17.5)
4위	호남권	(11.9)	호남권	(10.0)
5위	대경권	(10.5)	대경권	(9.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 수출순위 변화

(%)

순위	2011년		2016년
울산	1위 (18.3)	→	3위 (13.1)
경남	3위 (11.9)	→	5위 (9.2)
부산	9위 (2.6)	→	11위 (2.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 동남권 최대 수출대상국 부상

- 중국이 2004년~2014년 최대 수출대상국이었으나 2015년부터 순위 역전
- 對미국 수출의 49%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호조에 기인

동남권 수출대상국 변화

품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위	중국 (15.3)	중국 (14.6)	중국 (15.2)	중국 (13.0)	미국 (14.3)	미국 (14.7)
2위	미국 (7.9)	미국 (11.1)	미국 (11.3)	미국 (12.4)	중국 (11.3)	중국 (11.9)
3위	일본 (6.9)	일본 (7.2)	일본 (6.9)	싱가포르 (7.3)	일본 (5.0)	일본 (5.1)
4위	싱가포르 (5.4)	싱가포르 (6.5)	싱가포르 (5.7)	일본 (6.2)	싱가포르 (4.4)	싱가포르 (3.7)
5위	인도네시아 (4.1)	인도네시아 (4.3)	인도네시아 (3.3)	호주 (3.3)	호주 (4.1)	홍콩 (3.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경제 성장률 전망

■ 2017년 동남권경제 1.6% 성장 전망

- 2012년 이후 전국보다 낮은 1%대 저성장 지속
- 제조업 마이너스폭 축소, 서비스업 성장세 둔화, 건설업 양호한 흐름

■ 부산경제 전망, 기업인 대다수가 부정적 시각

- 부산상의 기업의견 조사 : 더 악화될 것(52.0%), 비슷한 수준(44.0%), 개선(4.0%)

동남권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동남권	1.9	1.7	2.0	1.1	1.6	1.6
전국	2.3	2.9	3.3	2.8	2.7	2.8

주 : 동남권은 BNK금융경영연구소 추정치
전국은 한국은행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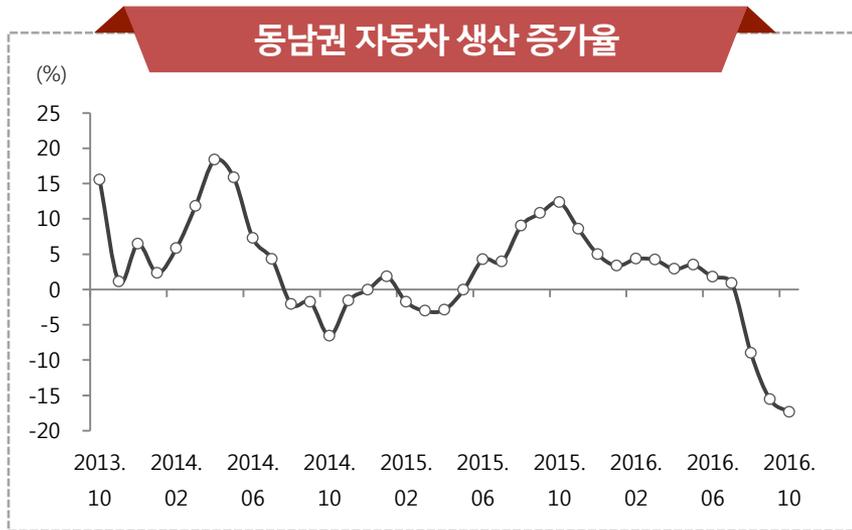
주력산업 : ①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생산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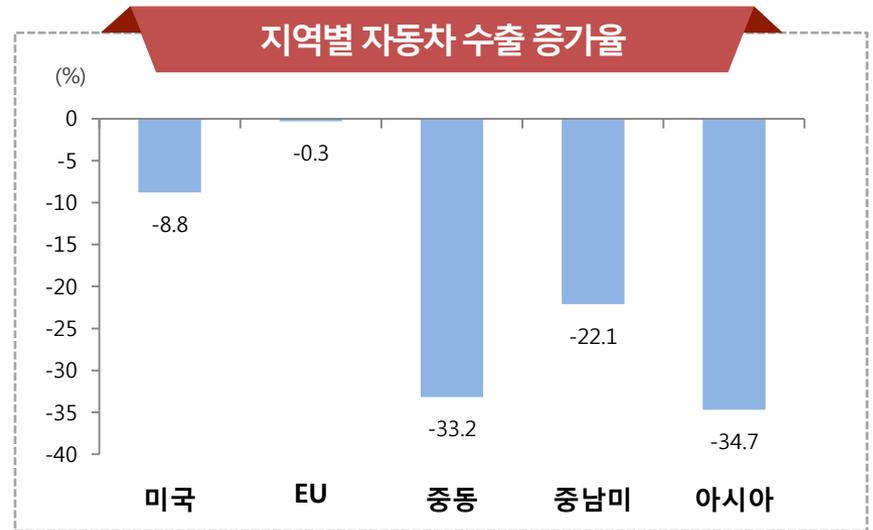
- 개별소비세 인하 및 신차 효과로 내수는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크게 감소

2017년 수출 부진 지속, 미국 판매 증가세가 관건

- 세계 자동차 수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2.1% 증가에 그칠 전망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력산업 : ②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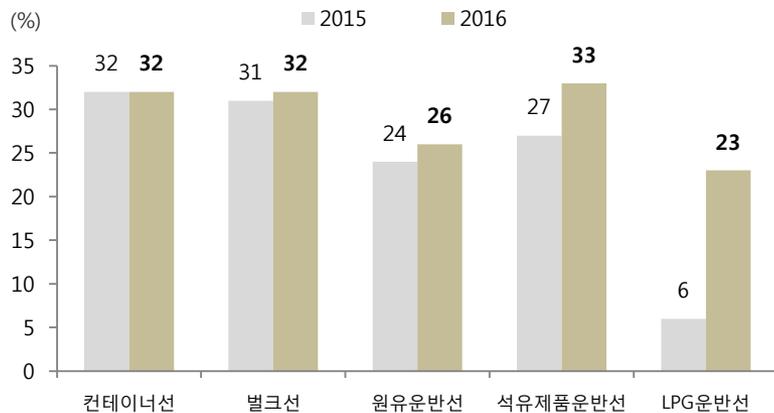
■ 선복량 초과공급 지속

- 수주 절벽, 전세계 선박 발주량(2016.1~11월) 전년동기대비 71.8% 감소

■ 2017년 부진한 흐름 속에 미약한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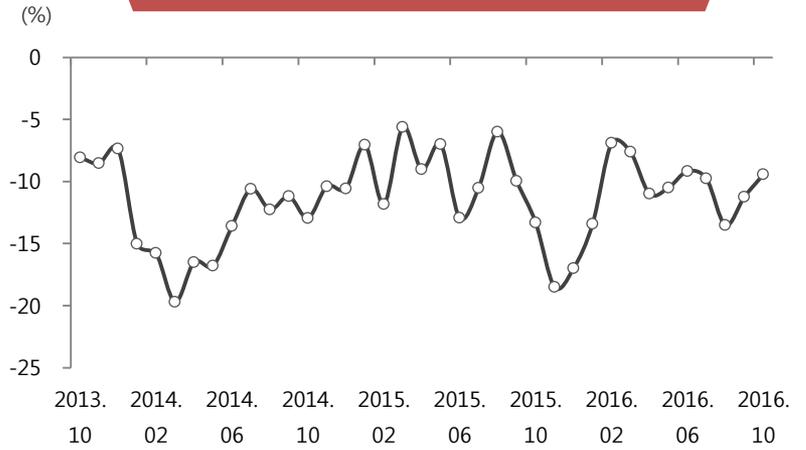
- 세계 교역량 및 유가 회복, 해상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긍정적 변화 예상

선종별 수요대비 과잉공급 수준



자료 : Danish ship finance

동남권 조선 생산 증가율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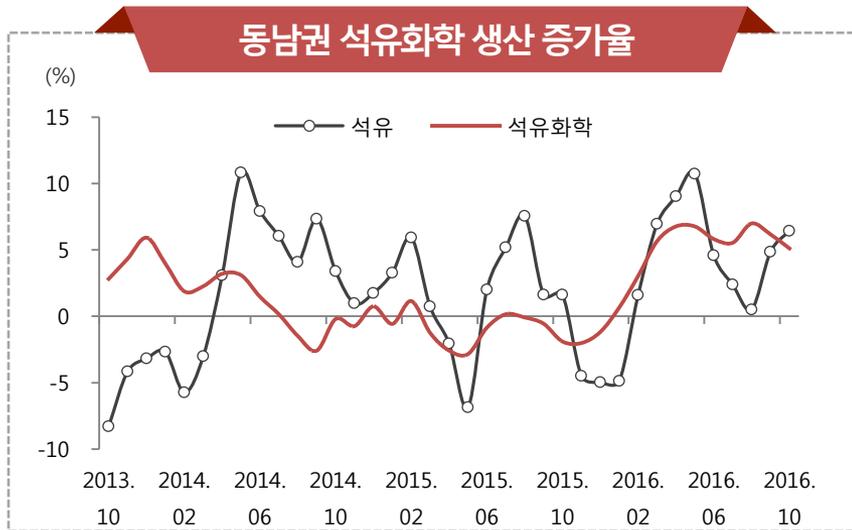
주력산업 : ③ 석유화학

■ 대외여건 개선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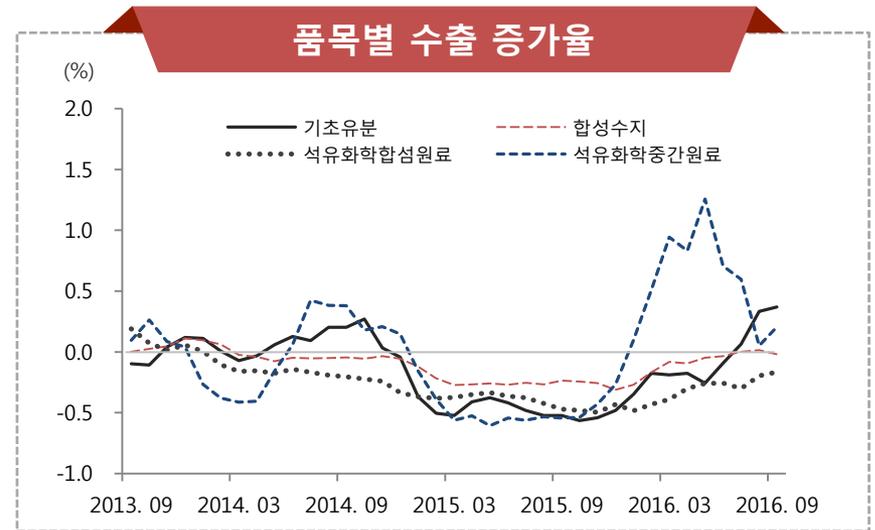
- 유가 회복, 주요국 수요 확대, 독일 등 경쟁국의 일시적 공급 감소 영향

■ 2017년 견조한 성장세 예상

- 유가상승 제한, 글로벌 수요개선 미흡,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은 제약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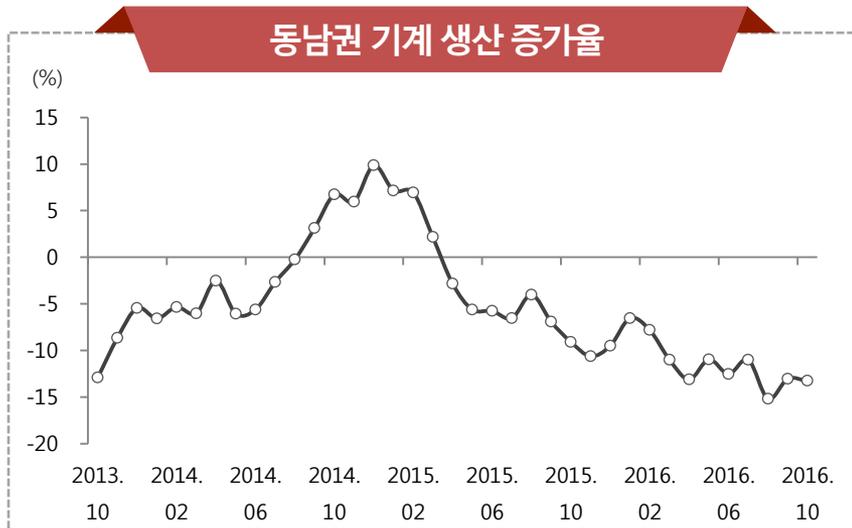
주력산업 : ④ 기계

■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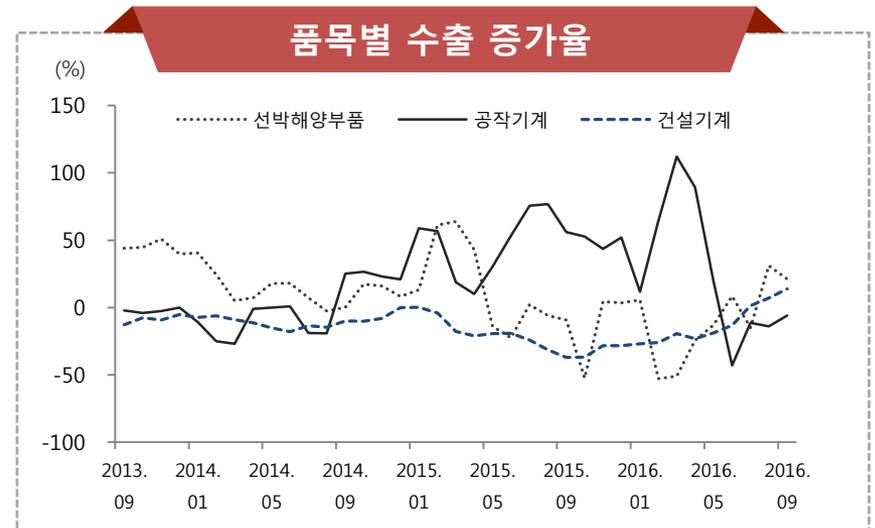
- 국내 설비투자 감소, 신흥시장국 경기둔화로 생산 감소세 확대

■ 2017년 생산 감소 지속될 우려

- 제조업 가동률 하락,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 수요 부진 예상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력산업 : ⑤ 철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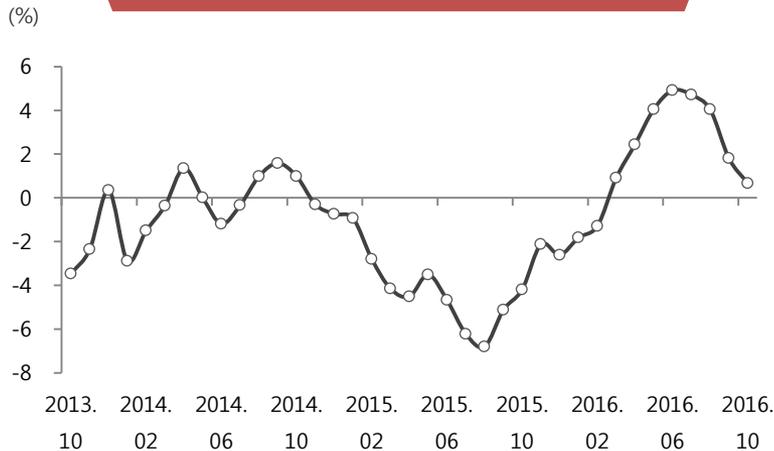
■ 공급과잉 개선으로 회복

- 중국 철강업 구조조정, 철강 가격 상승 등으로 성장세 시현

■ 2017년 완만한 증가 기대

- 세계 철강 수요, 미국 및 자원수출국 경기회복을 중심으로 확대 전망

동남권 철강 생산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세계 철강수요 전망 (%)

구분	세계	중국	신흥 시장국	아시아-오세아니아
2014년	0.7	-3.3	2.6	-0.9
2015년	-3.0	-5.4	1.9	-3.3
2016년	0.2	-1.0	2.0	0.5
2017년	0.5	-2.0	4.0	-0.4

자료 : 세계철강협회(WSA, 2016.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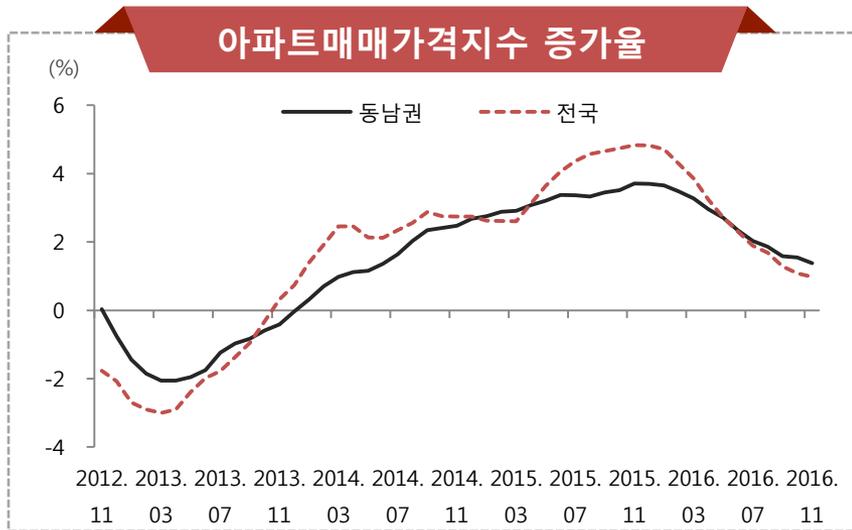
부동산시장

■ 부동산시장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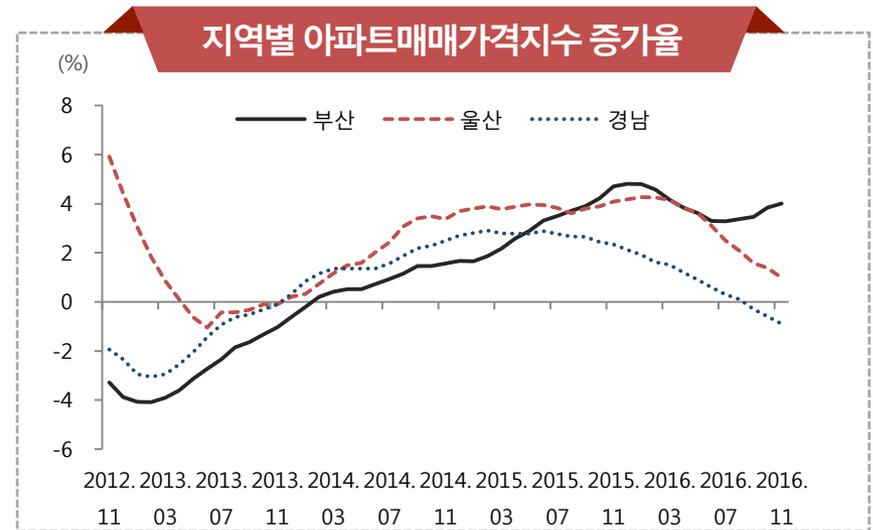
- 2016년 들어 아파트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 및 거래량 감소

■ 부산 상승세 지속, 울산 둔화, 경남 하락

- 상위지역(연제구, 해운대구, 동래구) vs. 하위지역(중구, 영도구, 사하구)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감정원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공급 side)

■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사상 최고치

- 2017년 입주예정 물량은 6만 7,352호로 최근 3년 평균대비 1.4배 수준

■ 경남 및 울산은 하방압력 우려 확대

- 최근 3년 대비 입주예정 물량 수준 : 부산 97.1%, 울산 137.2%, 경남 1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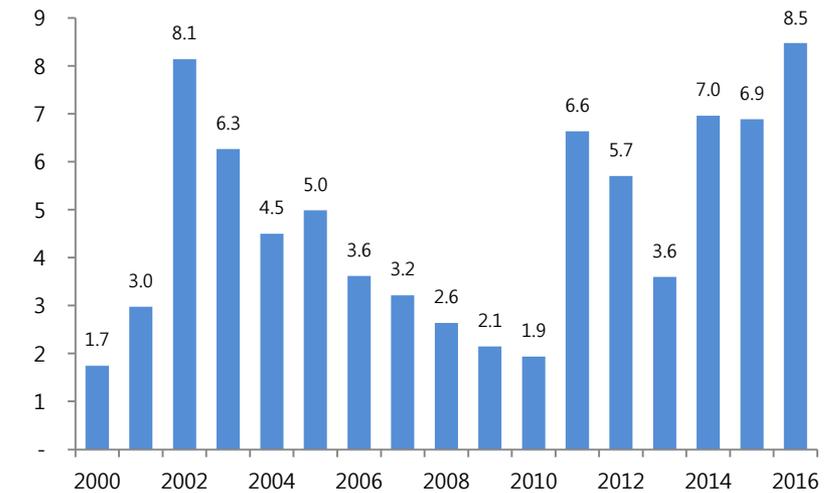
동남권 아파트 입주물량

(호,%)

구분	전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3년평균 ¹⁾ (A)	274,354	48,528	19,466	7,209	21,853
2017년 (B)	365,468	67,352	18,909	9,892	38,551
B/A ²⁾	133.2	138.8	97.1	137.2	176.4

동남권 아파트 분양물량

(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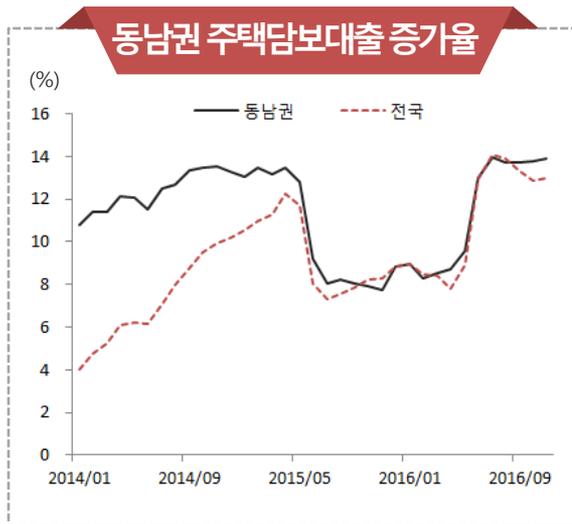
주 : 1) 2014~16년 평균 입주예정물량
 2) 최근 3년 평균대비 2017년 입주물량 수준
 자료 : 부동산 114

자료 : 부동산 114

부동산시장(수요 side)

■ 동남권 경기 부진, 국내 금리인상, 부동산 규제개편, 매매심리 약화 맞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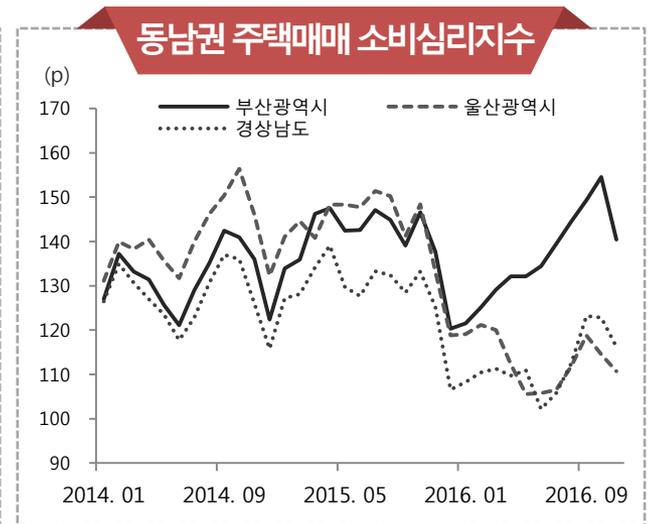
- 동남권 높은 제조업 비중으로 큰 폭의 경기 변동성, 당분간 개선 기대 어려워
- 최근 3년간 동남권 주택담보대출 연평균 10.7% 증가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DSR(Debt Service Ratio총체적상환능력심사)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주 : 지수가 100이상이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
 자료 :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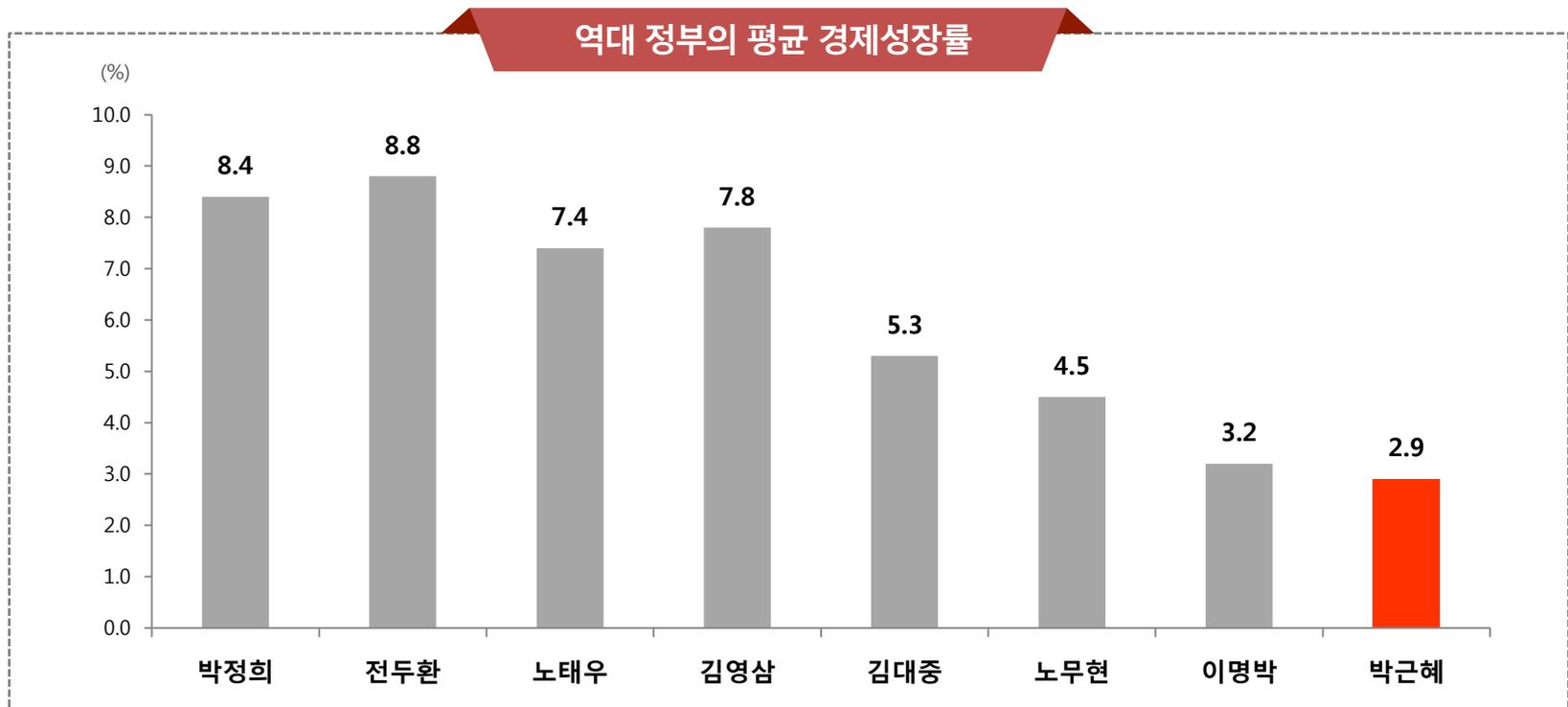
3장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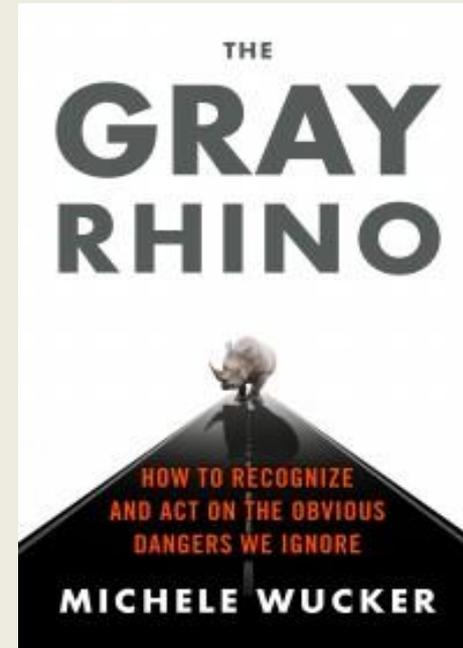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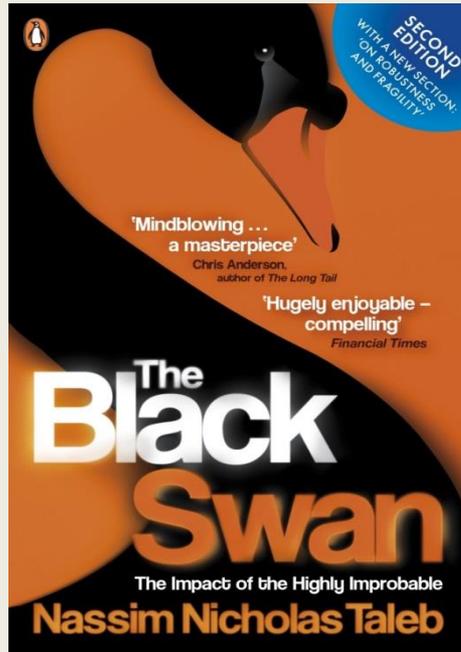
Era of Uncertainty

▪ 저성장 기조 장기화(secular stagnation)

- 잠재성장률 하락, 산업경쟁력 약화, 일본식 장기침체 우려
- OECD, Looking to 2060 : 2011~2030년(2.7%) → 2031~2060년(1.0%)



Era of Uncertainty



Era of Uncertainty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 Mike Tyson -

감사합니다

BNK금융경영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
www.bnkfg.com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